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22

10

유럽 박물관 기행
조용한 소도시 다름슈타트의
헤센주립박물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아름다운 대리석 발코니 무대 위
라 트라비아타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르노 카푸송



협연 이종은



예술감독 오충근

48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제 4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PROGRAM

우효원 <i>Hyo-Won Woo</i>	오! 코리아 Oh! Korea
차이콥스키 <i>P.I.Tchaikovsky</i>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차이콥스키 <i>P.I.Tchaikovsky</i>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64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2018. 10. 15 Mon.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남산정 요양병원 눈시원안과 8hoong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 입장료 |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전석 학생 50%할인)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문 의 |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18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
Pianist Minsoo Sohn

BUSAN WORLD 2018 10th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 (창) 부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 L.V. Beethoven,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말러 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거인" / G. Mahler Symphony no. 1 'Der Titan'

지휘 성시연
Conductor Shiyeon Sung

2018. 11. 1 | Thu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KNN

| 후 원 | 부산광역시 KNN 문화재단

| 협 찬 | 조광페인트 SK telecom 부산도시가스 E&S

| 문 의 | KNN 051-850-9568 www.knn.co.kr

| 입장권 |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 초대권 신청 | KNN 홈페이지 www.knn.co.kr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민을 위한 초대권은 KN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휘 성시연
Conductor Shiyeon Sung

피아니스트 손민수
Pianist Minsoo Sohn

연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시리즈II

말러, 천상의 삶을 노래하다

Mahler, *Symphony No.10 in F# Major* (미완성 교향곡)

Mahler, *Symphony No.4 in G Major* (천상의 삶)



예술감독 김원명



지휘 정병희



소프라노 박은주



구스타프 말러
(1860-1911)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대표 김일택

2018. 10. 11.(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인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기획 | 이성섭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서종철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The 65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재단
예술감독

für Beethoven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최연소 우승

스와나이 아키코 바이올린 리사이틀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1 in D Major, Op.12/1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3 in E-flat Major, Op.12/3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7 in c minor, 'Eroica', Op.30/2

예술감독 **김원명**

스와나이 아키코
바이올린

카네코 요코
피아노

2018. 10. 26.(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기관연합회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기획 | 이성섭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서종철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제14회

부산국제합창제

2018.10.17~20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Choral Busan Festival & Competition

개막공연 및 갈라콘서트



DAY 1 ▶ 개막공연 / Opening Concert

2018년 10월 17일(수) 오후 8시

스틸레 안티코(Stile Antico, 영국)

최고의 고음악 / 가장 정제되고 아름다운 다성음악을 선물하다



DAY 2 ▶ 갈라콘서트 1 / Gala Concert 1 _ 2018년 10월 18일(목) 오후 8시

코로 일루스트라도(Koro Ilustrado, 필리핀)

필리핀 최고의 남성합창단 / 강남스타일을 노래하다

DAY 3 ▶ 갈라콘서트 2, 청소년 / Gala Concert 2, Youth2

2018년 10월 19일(금) 오후 8시

안젤루스 도미니 합창단,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한국) 드라마틱 아트 대학 코러스(태국)

에반젤 송스터즈(필리핀) TNHS SPA 뮤직 코랄(필리핀)

세인트 폴 대학 트레블 콰이어(홍콩) 나인스 보이즈(인도네시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꿈을 꾸다



October 17-19, 2018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부산국제합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최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KI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KNN

협찬 BNK 부산은행

명인지약주

HYOSUNG Pharmacy Co.

유세코영상

양산병원

SARATOGA

대동대학교

The 5th HAEUNDAE JAZZ FESTIVAL

정미조 밴드

the frankie sixes

Malo(말로)

BMK



제5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2018.10.30^화 - 11.3^토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4일간의 특별한재즈 와인에 빠지다”

10.31 (수)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23rd ★ Swing Day “the frankie sixes” (Malaysia)

11.01 (목)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24th ★ 깊은 영혼의 올림 '개여울'의 “정미조 밴드”

11.02 (금)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25th ★ 한국적 재즈의 자존심 “Malo(말로)”

11.03 (토) PM8 - 재즈 와인에 빠지다 126th ★ 수식어가 필요없는 무대 “BMK”

★ 10.30 (화) PM8 - 부산 재즈루키밴드 컨테스트 결선 (무료)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후원 :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Sun&Fun Haeundae 해운대구

TICKET J석 40,000원
R석 35,000원
S석 25,000원

>>공연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051)623-0678 www.mudae.kr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8년 10월호 통권 32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9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10월 공연캘린더
- 16 BACKSTAGE OPERA**
아름다운 대리석 발코니 무대 위
라 트라비아타
- 18 MUSEUM OF EUROPE**
조용한 소도시 다름슈타트의 헤센주립박물관
(Hessisches Landesmuseum Darmstadt)
- 22 TRAVEL WITH YOU**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졌던 영천여행
- 27 PREVIEW**



- 39** ISSUE
제14회 부산국제합창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 42** REVIEW
- 44**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7**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67**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 68** NEW BOOK
새로 나온 책

이달의 PICK

늦여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2018년 여름도 어느새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다. 수확을 앞둔 황금들녘처럼 10월 문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과 공연장 나들이를 가져보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동시대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대표하는 실내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부산을 찾는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국립무용단 ‘목향’
10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국립무용단 레퍼토리 ‘목향’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셰익스피어의 유명 희곡 ‘맥베스’를 연극과 창작국악, 미디어아트, 현대무용을 결합해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가 부산무대에 오른다.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동시대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 (Renaud Capuçon)과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대표하는 실내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Camerata Salzburg)가 10월 20일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동안 수차례 협연을 통해 완벽한 호흡을 선보여온 르노 카푸송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동시대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으로 각광받고 있는 르노 카푸송은 전 세계 주요 공연장과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독주회와 실내악, 협연 무대를 넘나드는 활발한 연주로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1976년 프랑스 상베리에서 태어난 르노 카푸송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한 후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토마스 브란디스와 아이작 스티븐을 사사했다. 카푸송은 이후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데이비드 로버트슨,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파보 자비, 정명훈, 다니엘레 가티, 발레리 게르기예프, 구스타보 두다멜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베를린필하모니관현악단, 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파리오케스트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프랑스국립관현악단, 시몬볼리바르오케스트라, 로스엔젤레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실내악에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르노 카푸송은 그의 형제이자 첼리스트인 고티에 카푸송 외에도 마르타 아르헤리치, 니콜라스 안젤리치, 다니엘 바렌보임, 유자 왕,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엘렌 그리모, 마리아-주앙 피리스, 미하일 플레트네프, 바딤 레핀, 유리 배쉬메트, 트롤스 뢰르크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에든버러, 베를린, 루체른, 베르비에, 엑상프로방스 등 세계 유수의 페스

Camerata Salzburg



티벌에 초청받아 무대에 선 바 있다. 카푸송은 2013년 그가 설립한 엑상프로방스부활절축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그슈타트뮤지코스메(Sommets Musicaux de Gstaad)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니콜라스 안겔리치, 고티에 카푸송, 미셸 달베르토, 제라르 꼬스, 그리고 에벤 파르티트와 함께 녹음한 '포레: 실내악 작품 전곡집'으로 2012 에코클래식(Echo Klassik)에서 '올해의 실내악 음반상'을 수상한 카푸송은 모음집 'Le Violon Roi'로 골든디스크(Disque d'or)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볼프강 립, 파스칼 뒤샤팽, 브루노 만토바니 등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작곡한 바이올린협주곡을 담은 그의 최신 음반이 2017 프랑스 클래식 음악의 승리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2017 에코클래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푸송은 프랑스정부로부터 2011년 6월 국가공로훈장(Chevalier dans l'ordre National du Mérite)을, 2016년에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꼽히는 레지옹도뇌르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을 수여받았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대표하는 실내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대담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개성있는 연주로 세계적인 실내악단으로 손꼽히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지난 1952년 창단된 이후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모차르트 위크'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모차르트, 그리고 고전주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본질에 가까운 사운드 구현으로 호평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그동안 비엔나,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페라라, 루체른, 뮌헨, 쾰른, 파리 등 유럽 음악의 중심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하며 매년 해외투어공연을 통해 모차르트의 사운드를 구현해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게자 안다, 산도르 베그, 로저 노링턴, 안드라스 쉬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그들의 음악스타일을 구축해왔으며, 그동안 60여 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과 슈베르트 등 전통적인 챔버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낭만주의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양상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악장 그레고리 아스를 중심으로 단원들 스스로가 결정한 예술적 방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평단과 애호가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빈 악파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 하이든 & 모차르트

이번 무대는 고전시대 음악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고전주의 음악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 두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며진다. 1부에서는 하이든의 초기 교향곡 중 하나로 국내 무대에서는 자주 연주되지 않는 교향곡 제27번과 1775년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에서 작곡한, 이른바 '잘츠부르크 협주곡' 다섯 곡 중 마지막 작품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터키편으로'가 연주된다. 2부에서는 솔로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으로 문을 열며, 작품 전반에 흐르는 맹렬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불'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하이든의 협주곡 제59번으로 무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27번 사장조, Hob.I:27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터키편으로', K.219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라장조, K.218
하이든/교향곡 제59번 가장조 '불', Hob.I:59

10

2018 OCTOBER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회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회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1

경성대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Beethoven symphony No.9 합창' 19:30
대 초대/경성대학교 음악학과(663-4918, 4829)

2018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중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607-4067)

정진경 귀국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2

7

광주 에꼴드플루트앙상블과 부산 나눔플루트가 함께하는 문화교류음악회 '동양과 서양' 17:00
중 전석 1만원/윤예술기획(010-9025-201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 17:00
첼 초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

8

2018 신유 콘서트 'LOVE' 부산 14:00, 18:00
대 9만9천원·8만8천원·6만6천원
장군엔터테인먼트(1588-6956)

박은경 바이올린 귀국 독주회 19:30
첼 박은경(010-3847-2824)

9

14

창단 25주년 기념 제4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BSO(621-4577)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19:30
대 영앤앳섬(주)(070-8680-1277)

15

제46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모던 피아노 콘서트'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5773-9190)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19:30
첼 2만원·1만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010-4909-7444)

16

21

제87회 전국무용예술제 09:00
대 중앙무용문화연구원(02-866-8880)

트로이메라이 제2회 피아노 연주회 17:00
중 트로이메라이(010-3560-5464)

마티나스 레비츠키 내한공연 19:30
첼 Kumuda(797-5131)

2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1회 부산합창제' 17:00
대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

효원국악관현악단, 세계로 길을 열다 19:30
중 초대/효원국악관현악단(010-3859-4225)

LOVE CONCERT 19:30
첼 2만원·1만원/러브콘서트(010-3471-8943)

2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1회 부산합창제' 17:00
대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

독일가곡연구회 제53회 정기연주회 19:30
중 2만원·1만원/독일가곡연구회(010-9114-1733)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첼 유원욱(010-2470-0847)

28

제29회 이견음악회 19:00
대 (주)이견홀딩스(032-760-0562)

신라시니어스콰이어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중 신라시니어스콰이어(010-3950-6399)

29

CBS 콘서트 '김석훈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19:30
대 무료/부산 CBS(636-0050)

30

2018 평화통일콘서트 19:30
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866-6363)

2018 부산음악축제 III '고태국 음악비 건립 1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중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안은지 바이올린 독주회 '춤, 그리고 재즈의 향기' 19:30
첼 1만원·5천원/안은지(010-5577-3902)



WED	THU	FRI	SAT
<p>3</p> <p>제25회 동요사랑페스티벌 16:00 중 한국동요사랑회(010-3864-9889)</p> <p>아라온목관오중주단 창단연주회 19:30 첼 아라온목관오중주단(010-3756-3259)</p>	<p>4</p> <p>제51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0 대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p> <p>피아니스트 김정원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전곡 시리즈 '그랜드 피날레' 19:30 중 6만원·4만원/WMN(744-478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제콩쿠르 우승자 초청 리사이틀 시리즈 '이호정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부산코러스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19:30 대 부산코러스합창단(010-2551-7542)</p> <p>Son Young il Dance stage NO.3 20:00 중 손영일무용단(010-3581-215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제콩쿠르 우승자 초청 리사이틀 시리즈 '홍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3. 망(忘)'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 17:00 첼 초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p>
<p>10</p> <p>건군 70주년 기념 합동 군악연주회 19:00 대 제53보병사단(730-6652)</p> <p>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펫 독주회 19:30 첼 초대/드미트리 로카렌코프(634-2243)</p>	<p>11</p> <p>2018년도 장애인복지증진 및 행복나눔 콘서트 13:30 중 초대/남구장애인복지관(622-2656)</p>	<p>12</p> <p>2018년도 장애인복지증진 및 행복나눔 콘서트 13:30 중 초대/남구장애인복지관(622-2656)</p>	<p>13</p>
<p>17</p> <p>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0 대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2-598-9965)</p> <p>제46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이야기'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010-5773-9190)</p>	<p>18</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美&樂 페스티벌'19:30 대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김영미 교수 퇴임기념 연주회 'Love Concert' 19:30 중 5만원·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프라노 서유희 독창회 19:30 첼 2만원·1만원/서유희(010-3267-8182)</p>	<p>19</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 '황제 vs 영웅'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12소프라노 가곡과 아리아의 밤 'La luce e il sale' 19:30 중 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p>	<p>2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7:00 대 8만원·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S오퍼스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 중 BS오퍼스앙상블(010-9371-8987)</p> <p>솔리스트첼로 앙상블 '경상' 17:00 첼 예현드림오케스트라(010-5808-9234)</p>
<p>24</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1회 부산합창제' 17:00 대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제56회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피아노 듀오협회(010-5044-5320)</p> <p>부산국제오페라콩쿠르 14:00 첼 예현드림오케스트라(010-5808-9234)</p>	<p>25</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도의 날 기념 특별연주회-독도 다섯번째 이야기 '나의 사랑 독도야' 19:30 대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p> <p>제56회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피아노 듀오협회(010-5044-5320)</p>	<p>26</p> <p>제2회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19:30 중 용마코러스(010-9346-5000)</p>	<p>27</p> <p>제56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춤, 생명을 빛다' 17:00 대 초대/(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010-7545-8176)</p>
<p>3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4 '오페라 이야기 II' 11: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피아니스트 조연경 독주회 19:30 첼 이원뮤직(010-3696-5119)</p>	<p>사랑채극장</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 ※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전시실</p> <p>제23회 부산서예협회 초대작가전 10월 4일(목)-10월 8일(월) (사)한국서예협회 장전선 010-9631-4130</p> <p>제12회 대한민국 한서미술대전 전국공모전 10월 9일(화)-10월 16일(화) (사)한서미술협회 홍차식 010-6592-9648</p>	<p>부산회화제 10월 19일(금)-10월 25일(목) (사)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 김명수 010-4138-4847</p> <p>고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10월 29일(월)-10월 31일(수) 문성진 010-9464-0721</p>

10

2018 OCTOBER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u>1</u>	<u>2</u>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10:00 대 (사)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861-0119)
<u>7</u> 연극 '염쟁이 유씨' 14:00, 17:00 소 전석 3만5천원 화랑엔터테인먼트(1544-5564)	<u>8</u>	<u>9</u>
<u>14</u> 연극 2018 이미지 자 효 콘서트-부산 14:00, 17:00 대 9만9천원·8만8천원·6만6천원·5만5천원 편앤컬쳐(1600-6130)	<u>15</u>	<u>16</u> 제9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 13:30 대 초대 (사)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861-0119) 제9회 2018 부산국제춤마켓 19:30 소 신은주무용단(626-3037)
<u>21</u> 제56회 부산예술제 '2018 제19회 실버가요제' 15:00 대 초대/(사)부산연예예술인협회(646-7343)	<u>22</u> 제36회 부산창작관악축제 18:00 대 초대 한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010-6505-5689)	<u>23</u> 제36회 부산창작관악축제 18:00 대 초대 한국관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010-6505-5689)
<u>28</u>	<u>29</u>	<u>30</u> 제40회 부산실버합창단 정기발표회 13:30 소 부산광역시 실버예술단(635-5734)

WED THU FRI SAT

<p>3</p> <p>연극 '염쟁이 유씨' 20:00 전석 3만5천원 화랑엔터테인먼트(1544-5564)</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부산시립무용단' 12:2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4</p>	<p>5</p>	<p>6</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국립무용단 '목향' 15:00, 19:00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연극 '염쟁이 유씨' 16:00, 19:00 전석 3만5천원 화랑엔터테인먼트(1544-5564)</p>
---	-----------------	-----------------	---

<p>10</p> <p>제7회 소문실버가요축제 11:00 무료/(사)소문노인복지(256-2301)</p>	<p>11</p> <p>제18회 한마음경로대잔치 10:00 무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협회(502-6661)</p>	<p>12</p> <p>제37회 부산노인대학 연합예술제 11:00 무료/부산노인대학협의회(898-3600)</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 부산공연 19:30 전석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2018 시민뜨락축제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 창작국악단 짚은풍류' 12:20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13</p> <p>한얼악회 제12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 한얼악회(462-0173, 010-5067-6043)</p>
--	---	--	--

<p>17</p> <p>제9회 국공립어린이집 유아 & 교사 합창대회 13:30 초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508-5233)</p>	<p>18</p>	<p>19</p> <p>해외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제 56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2018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20</p> <p>제56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전통음악교류 한마당' 18:30 초대/(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	------------------	--	--

<p>24</p> <p>제21회 부산재능시낭송협회 정기공연 19:00 무료 부산재능시낭송협회(010-9900-8604)</p>	<p>25</p> <p>제3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9:00 초대 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852-6535)</p> <p>제9회 독도의 날 16:00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255-8062, 8064)</p>	<p>26</p> <p>제3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9:00 초대 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852-6535)</p> <p>부산광역시 남구생활문화예술제 18:00 무료 부산남구생활문화연합회(642-8090)</p>	<p>27</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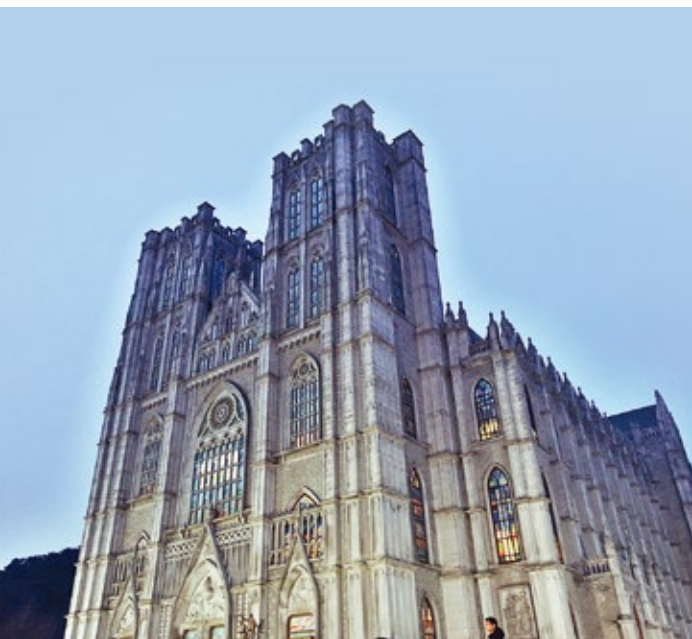
<p>31</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 20:00 무료(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부산' 10월 5일(금)-10월 15일(월)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p> <p>제56회 부산예술제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0월 19일(월)-21일(일) (사)부산사진작가협회 631-4111</p> <p>제56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전' 10월 26일(금)-27일(토) (사)부산꽃예술작가협회 612-2604</p>		
--	---	--	--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아름다운 대리석 발코니 무대 위 라 트라비아타

나는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이라 어느 곳을 가든지 여기서 오페라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상상을 하고 다닌다. 우리의 생활이 묻어나는 곳과 일어나는 일들로 극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어떤 공간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전경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준비중인 필자

지난 2001년 이탈리아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와 평화의 전당 무대에 올리는 창작 오페라 작품의 조연출로 매일 들락날락-사실 공연 종사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길로만 지나다니기 때문에 백 스테이지가 아닌 관람객이 다니는 공연장은 잘 살펴보지 않는다-하는 로비를 일주일이 넘어서야 보게 되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은 객석 5천석을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극장 규모로 많은 방송에서 알려져 있고, 외부의 모습은 마치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그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정작 로비는 사실 관객과 일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지 않고 단지 무대 또는 객석과 이어주는 공간이었다. 특히 로비에서 2층 객석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발코니형 계단이 그러했다. 그런데 이탈리아 카라라 지역의 대리석으로 휘감은 로비에, 2~3미터 직경의 샵들리에에는 너무나 멋지고 환상적인 공간이었다. 게다가 여기는 울림이 지나치게 좋아-관객이 차면 딱 알맞은 잔향-공연하기에 딱 알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여기서 무슨 작품을 하면 좋을까 하며 종종 생각하곤 했다.

2018년 1학기, 봄이 시작하기 직전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과장으로 있는 바리톤 강형규 교수가 내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만

나지며 전화가 왔다. 사실 대학교 성악과 학과장들이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학교 오페라 연출 부탁을 하기 위해서이고, 게다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나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산이 터무니 없이 열악한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났다. '아! 이번에도 재능 기부를 하게 되겠구나...ㅎㅎ' 나는 공연에 임할 때 그 작품이 상업성이나 공공성이냐에 따라 내 개런티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특히 교육적인 학교 오페라의 경우는 예산 자체가 터무니없기 때문에 연출료를 생각하다 보면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아예 그 금액을 무대 제작으로 돌리는 것이 마음 편해서 이미 여러 군데의 학교에서 재능기부로 연출을 맡은 바 있다. 다행히 학교가 아닌 유수의 다른 단체들은 정당한 연출료를 주며 나를 찾는 곳들이 많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학생들과 하는 것만으로 즐겁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 오페라단의 상근 연출을 했으니 당연히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나의 긍지이니까.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공공성이나 교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잘 해내고 싶다.

강교수는 내게 이번에는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작품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나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다. 17년 전 유학생이자 조연출 시절 한국에 들어와 봤던 그때 그 설레임이 불끈 솟아올랐다. 사실 살짝 튀기면서 하루 생각해 보고 한다고 해야 하는데 나는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다. 그는 처음에 '피카로의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여기서 그 어떤 작품을 다 할 수 있지만 최초로 하는 공연이니 만큼 대한민국 오페라 초연 70주년에 맞춰 '라 트라비아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 비비안 리가 계단에 사선을 앉아 누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하며 독백하는 장면처럼 비올렛타가 마지막 장면 쓰러져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그 계단에서 하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파티 장면과 기타 여러 장면에서 공간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다. 연습을 하는 내내 그 계단 장면에서 파티를 하는 합창단의 모습과 비올렛타가 'Sempre libera(항상 즐겁게 사는 내 인생)' 아리아를 부르는 상상을 하며 거기서 멋진 무대를 그리게 되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 장면

2018년 여름은 엄청나게 더웠다. 정말 너무 더웠다.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생들과 나는 이 여름을 라 트라비아타와 연애를 하며 보내게 되었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자신의 배역에 연습을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 집중하며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야말로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로비,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곳에서, 무대로 다시 셋팅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신바람나게 만들었다. '궁극통'이라는 긍정적인 신념 아래 새롭게 공연장으로서의 공간으로 변모되어 갈 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최초로 시도된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의 공연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분명한 것은 배우와 관객들의 거리가 가까워 서로간의 피드백이 즉각적이어서 오페라가 어렵다고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편안하고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백 스테이지가 바로 온 스테이지가 되는 그 순간이니까...



조용한 소도시 다름슈타트의 헤센주립박물관 (Hessisches Landesmuseum Darmstadt)

글·사진 김성민 (주)유료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 1 다름슈타트 러시아정교회 2 피터르 브뤼헬의 '교수대 위의 까치'
- 3 비현실적이고 불안한 교수대와 시민들 4 헤센주립박물관 내부

예술의 도시 다름슈타트



다름슈타트(Darmstadt)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약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1997년 정부로부터 과학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도시가 공과대학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관련 연구원들과 대학생들이 약 4만 명이라니 전체 15만의 도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곳은 과학이 아닌 예술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다스렸던 헤센 공국의 마지막 대공, 에른스트 루트비히(Ernst Ludwig



1869~1937)가 자신의 도시를 예술가들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공은 예술가 육성과 보호를 위해 마틸다 언덕에 예술가 마을을 지었고 당시 독일 예술을 이끌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19세기 말 세계적으로 유행한 아르누보 양식의 독일 중심도시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틸다 언덕에 가면 당시 건축물과 박물관들을 볼 수 있다. 다름슈타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일치기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 오늘은 이 도시에 위치한 헤센주립박물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2011년 오랜 공사기간을 끝내고 새롭게 오픈한 이 박물관은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다양한 유물과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필자가 미술관만 관람하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으니 여행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미술관에서는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의 작품부터 프랑스 인상주의 작품들과 독일 표현주의 회화의 창시자 막스 베크만(Max Beckman)과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등 다양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농민 화가의 마지막 유작 '교수대 위의 까치'

사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의 유작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작품은 500년 전 플랑드르 지역에서 '농민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hel 1525?~1569)의 '교수대 위의 까치'라는 작품이다. 브뤼헬은 종종 농민 복장으로 분장하고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돈이 많은 후원자들을 위해 성화나 초상화를 그렸던 당시 화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브뤼헬의 작품이 대단한 이유는 그의 작품이 단순한 묘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타락한 교회나 과중한 세금을 요구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을 풍자하



유럽 박물관 기행



그런데 문제는 교수대 위의 까치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 까치는 흉조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경쾌하게 생각하는 까치소리를 유럽에서는 시끄럽고 수다를 떠는 소리로 생각한다.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 까치'를 봐도 유럽 사람들이 까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수다쟁이 까치와 교수대를 연결해보면 당시 스페인은 시민들의 밀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플랑드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경쟁자를 밀고하여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결국 외부의 적이 있는데 내부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까치처럼 혀를 놀려서 상대방을 죽이는 당시 시

는 내용을 작품 속에 몰래 감춰두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인문학자 오르텔리우스는 브뤼헬의 작품은 묘사된 것 이상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가가 사망하기 몇 해 전부터 플랑드르 지역을 다스리던 스페인은 전쟁을 목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1565년 유래 없는 흉년과 흑한으로 인해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난다. 결국 스페인은 많은 병력으로 화가가 살던 브뤼셀과 플랑드르 지역을 장악하고 반란군 소탕과 함께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평소 작품을 통해 풍자를 즐겼던 화가는 마지막 순간에 겁없이 두려웠는지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불 태우고 '교수대 위의 까치'라는 작품만은 남겨두었다니 이 작품 속에는 분명 중요한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교수대와 까치가 있다. 짧은 고통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참수형과 달리 교수형은 예전부터 하층민이나 노예들을 죽일 때 종종 사용되었는데 공개 교수형은 오락거리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교수대 앞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당시 시대상황을 생각해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두려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플랑드르 사람들의 용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를 풍자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시민들도 외세의 침입을 나타내는 교수대 앞에서의 용기 있는 모습이라기보다 그런 현실 앞에서 그저 하루의 즐거움만 누리려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나름 그림을 통해 세상을 풍자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알렸던 화가 입장에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 다투는 모습과 하루의 즐거움만 찾는 무지한 사람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Hessisches Landesmuseum Darmstadt



6

무지한 다수?

헤센 박물관에서 필자의 설명을 듣던 한분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열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무지한 다수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자 함께 하셨던 다른 분은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무지한 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보다 소수의 사악한 집단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그 순간 그림을 쳐다보던 필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여태껏 사진 자료를 통해 여러 번 그림을 보았지만 그날 처음 발견했다!) 교수대의 모양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는 것이었다.(자세히 보면 교수대의 아래쪽과 위쪽의 모양이 비대칭이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대의 모습이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었고 더 중요한 부분은 교수대가 세워진 바닥만 솟아올라 있어 교수대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화가는 왜 교수대를 이런 모습으로 그렸을까? 어쩌면 화가는 소수의 까치와 같은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했지만 필자가 무지한 다수라고 생각했던 그림 속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희망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수대를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린 것은 아닐까? 실제 화가가 죽은 이후 플랑드르 사람들은 스페인의 압제에 저항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는데 최초 실행자들은 시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하급귀족들이었고 그들은 80년의 긴 세월을 싸워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결국 화가의 희망은 성취가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소수의 까치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했을 때 항상 다수의 시민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시대도 결국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교수대 위의 까치로 기록될 수 있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려는 의식 있는 시민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독일 표현주의 화가 키르히너의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6 헤센주립박물관 전경

테마가 있는 여행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졌던

영천여행

유래 없었던 폭염도 어느새 물러가고
선선한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묻어나던 지난
9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9월 테마여행지는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영천'. 국내 최대 포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은 달콤한 포도가 영그는 매년 가을이면 테마여행지로 자주 찾고 있다.

엿저녁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14일 아침,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손한별, 송다솔, 조희규, 지영재 씨가 동행하면서 회원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두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최대 생산지인 영천이 자랑하는 영천와인학교. 와인 제조가 가능한 머루포도(MBA) 주산지로서, 국내 와인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천은 지난 2007년부터는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시행,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조성 과 와인개발센터, 와인공장, 와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와인사업단 직원의 안내로 영천와인학교를 둘러보았





- 1 영천와인학교 내부
- 2 '포도껍질 멀리 뺏기' 게임하는 정기회원들
- 3 포도 최대 생산지인 영천
- 4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입고서원



다. 대형 오크통 모양을 한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학교는 와인양조 실습장과 와인저장고, 와인터널, 와인카페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와인학교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와인 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와인제조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직접 와인을 만들기 위해 와인 체험장인 '고도리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겼다.

고도리 와이너리에 도착하자 와이너리 대표인 최봉학 씨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원래는 와인만들기에 필요한 포도를 회원들이 직접 따야하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최봉학 대표가 미리 포도를 준비해놓았다. 회원들은 최봉학 사장의 설명에 따라 준비된 포도를 투명용기에 넣고 잘 으갠 후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한 아황산과 발효를 위한 효소를 넣고 자신의 이름을 적은 뚜껑으로 봉했다. 이렇게 제조된 와인은 1차 발효 후 포도껍질을 걸러내는 착즙과정과 2차 발효과정을 거친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세달 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와인으로 탄생된다. 와인만들기 체험을 마친 후에는 영천포도 한박스를 상품으로 걸고 '포도껍질 멀리 뺏기' 게임이 펼쳐졌다. 포도껍질을 가장 멀리 뺏는 사람이 우승자로, 저마다 껍질을 멀리 뺏기 위해 숨을 모으는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게임 후에는 영천와인을 두고 예정에 없던 노래경연대회가 펼쳐지면서 어느새 체험장은 흥겨운 웃음과 박수소리로 넘쳐난다.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돈까스 정식에 와인 시음을 곁들여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정기회원들이 고대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작은 콘서트가 펼쳐졌다. 빗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가



TRAVEL WITH YOU

테마가 있는 여행



5



6



7

5 임고서원 6·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운데 단원 손한별, 송다솔, 조희규, 지영재 씨는 전통국악은 물론 창작국악, 가요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멋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으로 회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주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후 일정지인 임고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고서원은 고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으로,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영천은 정몽주 선생이 태어나 자란 고향으로, 임고서원 외에도 최초의 임고서원지인 부래산과 임고서원 서북쪽에 위치한 부모 묘소, 그리고 우항리에 새로 조성된 선생의 생가와 선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유희비 등 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지가 남아있다.

현재 문충사, 홍문당, 영광루, 함육재 등 건축물과 정몽주 선생의 영정 2폭, 포은문집, 지봉유설, 포은집 등 200여권의 중요한 서적이 소장되어 있는 임고서원은 특히 지난 2012년 5월, 7여년간의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유물전시관과 전통 한옥구조의 생활체험관, 원형극장, 연못, 녹지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임고서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우선 영상실에서 포은 선생의 충효와 그의 정신이 담긴 임고서원의 역사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감상한 회원들은 해설사로부터 포은 선생의 출생부터 출증했던 관직 생활, 대사성 이색으로부터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祖宗)’으로

추앙받았던 그의 학문과 충의지사(忠義之士)로서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회원들은 고문서와 영상으로 전시된 포은관과 임고서원의 연혁과 영남사림(嶺南士林)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영천의 성리학과 성리학자들을 소개하는 임고관이 자리한 포은유물관을 차례로 둘러본 후 임고서원 앞에 자리한 선죽교로 자리를 옮겼다.

정몽주 선생이 이방원에게 살해당한 선죽교는 북한 개성에 있는 돌다리로, 현재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원래는 선지교(善地橋)로 불리었으나 선생이 살해당한 후 다리 옆에서 참대나무 가지가 솟구쳐 나오면서 선죽(善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임고서원에 있는 선죽교는 이 개성의 선죽교를 그대로 재현해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또, 선죽교 옆에는 높이 27.4m, 둘레는 5.95m에 이르는, 수령 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본래 임고서원이 있던 부래산에 함께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임고서원이 소실되고, 1600년경 현 위치에 서원을 다시 지으면서 이 나무도 옮겨 심었다고 전해진다.

임고서원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했던 영천 테마여행은 숙성된 와인의 향긋함만큼이나 오랫동안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11.9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지리산을 품고 있는 청정골 산청으로 떠나는 테마여행.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청 남사예담촌을 시작으로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棉花)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 등으로 늦가을 여행을 떠난다.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산청도착, 남사예담촌 탐방
- 12:00 중식 및 자유시간
- 13:00 목면시배유지 도착 및 탐방
- 13:40 성철대종사 생가(겉외사) 도착
- 15:30 동의보감촌 탐방
- 16:30 부산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10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김동근(남구 수영로) | 이효숙(수영구 수영로) | 최철유(수영구 수영로) |
| 김정기(남구 유엔평화로) | 임미향(수영구 수영로) | 허원영(남구 황령대로) |
| 김지영(중구 충장대로) | 조상혁(남구 석포로) | |
| 윤양희(사하구 사하로) | 최옥련(남구 오륙도로) | |

기존 회원

- | | | |
|-----------------|----------------|---------------|
| 고영주(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 정은영(기장군 정관읍) |
| 공임순(부산진구 만리산로) | 김순자(남구 진남로) | 진현애(수영구 황련산로) |
| 곽량교(영도구 해양로) | 김종미(수영구 수영로) | |
| 김명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박정민(동래구 금강공원로) |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화이트테이블 예술인 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 경남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해 부산, 경남지역 작가를 비롯해 7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설립된 자치적, 자생적, 자립적 법인협동조합인 화이트테이블 예술인 협동조합은 그동안 자체적인 교육과 콘텐츠 개발, 공공 미술관 및 기업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작가들이 스스로 창작환경을 확장시켜 주류미술시장에서 소외된 작가들의 자생적 판로를 개척해오고 있다. 화이트테이블 예술인 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시립미술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직접 아트샵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그해 10월, 서울의 복합문화공간인 네모에서 첫 번째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를 개최, 실용적 아트상품과 중저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전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11개 미술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졸업생(전업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부산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아트상품과 드로잉 및 소품을 소개하는 직거래장터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부산전이 10월 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전역에서 펼쳐진다.

작가) 50여명과 화이트테이블 예술인 협동조합 기획팀에서 추천을 받은 작가 등 70여명이 참여, 그 중 80% 이상이 부산, 경남지역의 신진 작가들로 구성되어 지역 젊은 작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능 넘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행사기간동안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샵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라이브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10월 7일 오후 4시 부산시민회관 연회실에서 열리

는 워크샵에서는 '한국에서 현대미술가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화이트테이블 예술인 협동조합이 개발한 체험프로그램 중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가 행사기간 중 상시로 열리며, 행사 시작일인 10월 5일에는 갤러리 창에서 팝아트 스티커자 일러스트레이터인 홍원표 작가의 라이프페인팅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2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큐레이터로부터 작품 및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일시 10월 5일(금)-15일(월) 장소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갤러리 창, 로비, 아트샵, 세미나실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고주망태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온 '노자와 베토벤'의 2018년 주제는 '고주망태(孤酒忘態)'.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순우리말인 '고주망태'를 '외로워서(孤) 술(酒) 한 잔 하고, 잊고(忘) 싶으나 결국 자신이 택할 마지막 태도(態)는 무엇인지를 묻는 새로운 해석의 '고주망태(孤酒忘態)를 주제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과 위로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주망태(孤酒忘態)의 세 번째 단어인 '망(忘)을 주제로 현실의 괴로움과 슬픔을 잊고자 하는 예술가의 고뇌와 동양의 철학을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3. 망(忘)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세 번째 무대가 10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소프라노 김성혜를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국립음악원 및 아카데미아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 및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소프라노 김성혜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을 맡는 등 오페라 주역으로 국내외 무

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시작과 끝은 두 곡의 세레나데가 장식한다.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작을 유럽 무대에 알린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제1악장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아름다운 선율로 세레나데의 정식으로 손꼽히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1악장으로 무대의 막을 내린다. 소프라노 김성혜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한 김소월의 시에 감동진이 곡을 붙인 '뜻있어와 안정준 작곡의 '아리 아리랑'으로 아름다운 음색이 돋보이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베토벤의 서정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현악4중주 제13번 중 5악장 '카바티나' 등 실내악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일시 10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무용가이자 안무가였던 고(故) 최현의 유작인 '군자무'(1993년 국립무용단 초연)를 바탕으로 윤성주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안무하고, 정구호가 연출한 '묵향'은 지난 2013년 초연무대를 통해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춤의 맛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춤이 지닌 고유미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세계무대에 알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묵향'은 초연 당시부터 정구호 연출이 선보인 감각적 무대와 의상으로 무용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무대 상부에서부터 흐르는 네 개의 흰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사군자의 화려한 색상은 아름다운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비주얼을 선보였다. 또, 무용과 의상, 음악 등 작품을 이루는 요소는 최대한 전통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한결 정제된 미장센으로 관객들에게 동시대적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제시하며 한국춤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도 했다.

'묵향'은 초연 2년 만에 세계 무용계의 러브콜을 받는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 201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오사카 NHK홀에서 열린 공연이 전석 매진되던 이어 2016년 2월 '홍콩예술축제'에서는 한국무용 장르로는 최초로 초청받아 현지 관객의 호평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국립무용단 '묵향'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국립무용단의
고정 레퍼토리 '묵향'이 부산을 찾는다.

속에 2회 공연 모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70년 전통의 '레 누 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Les Nuits de Fourvière)'에서도 최초의 한국 작품으로 초청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해외에서 일군 호평은 한국 전통춤에 대한 신드롬으로 이어져,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러브콜을 불러일으키며 2016-2017 시즌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천안,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기도 했다.

'묵향(墨香)'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서무(序舞)와 종무(終舞), 그리고 매·난·국·죽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군자가 상징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군자의 시선을 담고 있으며, 무용수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지닌 깊이를 담아낸 윤성주의 안무, 간결한 양식미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한 정구호의 연출이 어우러져 예술적인 면에서 간결함의 완성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둥근 치마 사이로 살짝 보이는 버선코, 여인의 손끝을 아름답게 받쳐주는 저고리 등 무용수의 움직임을 따라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의상은 마치 한복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며, 한국춤 속에 내재된 여백의 미, 정중동의 미학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묵향

일시 10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프리뷰

VOŁOSI



‘컨템포러리 분야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이내믹한 신예 밴드 중 하나, ‘이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에너지가 음악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결합을 일으킨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파위를 지닌 내면의 숨겨진 에너지’ 등 전 세계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볼로시는 비올리스트 Jan Kaczmarzyk, 바이올리니스트 Krzysztof Lasoń, Zbigniew Michałek, 베이스리스트 Robert

Waszut, 첼리스트 Stanisław Lasoń 등 폴란드 출신의 남성 연주자들로 결성된 현악5중주팀으로, 2010년 ‘뉴 트래디션 페스티벌(New Tradition Festival)’로 데뷔한 후 유럽 전역에서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거머쥐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데뷔 이듬해인 2011년에는 유럽방송연합에서 개최하는 ‘그랑프리 스베토자르 스트라치나(Grand Prix Svetozar Stracina)’에서 ‘월드 뮤직’ 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2년에는 그들의 첫 앨범인 ‘Volosi(2011)’가 월드차트 유럽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동안 해외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나며 비평가들의 호평을 이끌어온 볼로시는 2016년에는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 페스티벌(Colours of Ostrava Festival)’에서 ‘그랑프리 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 부산공연

유럽을 대표하는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VOLOSI)’가 부산을 찾는다.

코 뮤직 크로스로드 어워드(Grand Prix Czech Music Crossroads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유럽 전역의 월드뮤직 페스티벌 섭외 1순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볼로시는 지난해 유네스코가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세계적인 음악 마켓’으로 평가한 세계 최고의 월드 뮤직 마켓인 위맥스(WOMEX, World Music Expo)의 오프닝 쇼케이스 무대에 선 바 있다. 올해는 부산공연에 앞서 10월 6일,

세계적인 월드뮤직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018’에 초청받아 한국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특히 볼로시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갖는 현악5중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록, 팝, 집시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어법을 활용하여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해왔으며, 5인의 남성 현악연주자들이 펼치는 파워풀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연주와 5개의 현악기가 표현하는 폭넓은 음역과 현악기 특유의 애절함, 때로는 넘치는 박진감과 당당함은 상반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일시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은 지난해 가족극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의 세 번째 정기 상연작으로, 매년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창작극을 선보여온 극단 더블스테이지가 백석 시인의 동명의 동화시를 각색해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특히 상연에 앞서 관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사랑채극장의 객석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212석이었던 객석 수는 300여석으로 늘어났

으며, 컬러풀한 벤치형 객석 설치에 따라 어린이는 물론 함께 온 어른 관객들도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

토속적인 시로 유명한 백석 시인이 어린이를 위해 창작한 '개구리네 한술밥'은 서로 돕고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한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시어와 운율에 담은 동화시로, 간결한 내용 속에 리듬감이 살아있고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 운을 맞추는 어미의 반복으로 마치 한편의 노래처럼 쉽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아무리 바쁘고 내 할 일이 있어도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개구리 친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필독서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음 착한 아기 개구리 폴짝이가 엄마의 심부름으로 쌀 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마음 착한 아기 개구리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이 10월 16일부터 석달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진다.

말을 얻기 위해 형 필찍이네로 출발한다. 가는 도중 손을 다친 세시랑게, 길을 잃은 방아깨비, 수렁에 빠진 쇠똥구리, 풀에 걸린 하늘소, 거미줄에 걸린 개똥벌레 등 어려움에 처한 숲속 친구들을 만난 폴짝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도와준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느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느새 날이 저물어 폴짝이는 형네 집에서 쌀 대신 벼를 얻어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밤길은 개똥벌레가 밝혀주

고, 너무 지쳐서 무거운 벼집은 하늘소가 들어주고, 쇠똥으로 막힌 길은 쇠똥구리가 굴러서 길을 열어 주고, 얻어 온 벼 한 말은 방아깨비가 신나게 짘어 주고, 장작이 없어 밥을 못 짓자 세시랑게가 폴룩폴룩 거뭇 지어 흰밥 한 술을 지어낸다. 개구리와 친구들은 모두의 힘으로 지어진 한술밥을 두고 둘러 앉아 맛있게 먹는다.

'개구리네 한술밥'은 극에 등장하는 곤충 친구들과 객석의 어린이들이 소통하며 만드는 참여형 공연으로, 다채로운 색깔의 사실적인 무대와 다양한 곤충들의 개성넘치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개구리네 한술밥

일시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프리뷰

美&樂 페스티벌



이정필
지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한 무대 ‘美&樂 페스티벌’은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과 함께 궁중복식에서부터 민속복식, 창작복식 등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TBN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원향춤 보존회, 부산예술단,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과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

소녀합창단이 출연, 가무악(歌舞樂)의 향연 속에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축제의 신명을 표현한 이준호 곡 ‘축제’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임금이나 대신들이 행차할 때, 혹은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연주되던 대표적인 행진곡인 ‘대취타’, 동살풀이 장단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흥동기 곡 ‘고구려의 혼’, 풍년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신명으로 풀어낸 이준호 곡 ‘판놀음Ⅱ’, 현대인의 고뇌, 그리고 갈등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이경섭 곡 ‘방향’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특히 ‘대취타’, ‘고구려의 혼’, ‘방향’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궁중복과 전통한복, 창작의상 패션쇼가 각각 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美&樂 페스티벌

—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美&樂 페스티벌’이 10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쳐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인 원향 엄옥자 선생의 춤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원향춤보존회에서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왕비 혹은 왕이 직접 추었던 ‘태평무’와 경남 통영(충무)에서 전승되어 온 ‘승전무’를, 부산시립무용단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추는 민속춤의 하나인 굿거리춤을 새롭게 각색한 ‘기녀복 춤과 호남

지방의 무당들이 지전(중이돈)을 가지고 추는 춤인 ‘지전춤’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태권도 시범단인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동작에 아크로바틱, 웨이브, 브레이크, 재즈 등 다양한 동작을 입힌 ‘태권무’를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이 외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부르는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를 부산시립무용단 김용철 예술감독의 춤사위로 감상할 수 있으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국악가요 ‘가시머시사랑’, ‘경복궁 타령’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예술단과 원향춤보존회가 신명의 춤과 풍물놀이가 함께하는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최수연
피아니스트김선욱
피아니스트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일곱 번째 무대이기도 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연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와 작곡가 슈만으로부터 ‘최고의 교향시’라 극찬받았던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들려준다.

첫 곡인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는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으로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베토벤의 생애’를 직접 집필하기도 했던 프랑스의 문호 로맹 롤랑으로부터 ‘걸작의 숲’이라는 호평을 받았던 명곡이다. 베토벤이 남긴 5곡의 피아노협주곡 중 여성적이고 우아한 제4번과 아울러 널리 애주되는 곡으로, 때때로 교향곡을 연상케 할 정도로 구성이 웅장하다.

협연자 김선욱은 지난 2006년 18세의 어린나이에 세계적 명성의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수상하며 40년 역사상 최연소, 최초의 아시아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콩쿠르 결승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 ‘황제 vs 영웅’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한명으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황제 vs 영웅’이 10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3년에는 베토벤 하우스에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로 선정된 바 있다.

1899년에 초연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는 슈트라우스가 자유분방한 기법으로 자신 있게 쓴 야심작으로 스케일이 웅장하다. 제목의 ‘영웅’은 슈트라우스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것으로, 자서전적인 음악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준다. 작품은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전음악처럼 일정한 형식이 없고 표제적 형식을 띄고 있다.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은 언론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후 2014년 본머스 심포니와 함께한 BBC 프롬스 데뷔무대를 포함하여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서트헤보,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등 유럽 주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독주자로 무대에 오르며 명성을 쌓아왔다. 1988년 서울 태생으로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선욱은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 수상 외에도 2004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콩쿠르 및 2005년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

황제 vs 영웅

일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프리뷰

제31회 부산합창제



지휘 전진

부산시립합창단

지난 1985년 시작된 후 올해로 31회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그동안 다양한 합창단을 발굴, 서로 교류하며 공연의 장을 펼침으로써 지역 합창음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부산합창제는 매년 참가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역대 합창제로서는 최다 참가팀인 43개팀이 참가, 합창으로 하나되는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첫 날인 10월 22일에는 경현 Happy Choir(지휘/이외균), 해운대 노노 실버합창단(지휘/고봉수), 솔내음하모

니 합창단(지휘/이순희), 예그리나 합창단(지휘/강종철), 붓다 보이소 콰이어(지휘/이찬우), 모래톱마을 합창단(지휘/이정란),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지휘/강학운), 명호 여성합창단(지휘/임재우), 에체르 합창단(지휘/조신미), 금성 하모니(지휘/손욱), 부산 브라보 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동의대학교 교수합창단(지휘/최훈녀), 부경 한소리 합창단(지휘/조성빈), 글로리 콰이어(지휘/이정철),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가 무대에 오른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신라 시니어스 콰이어(지휘/이은정), 남구 시니어 합창단(지휘/박성수), 금빛 어머니 합창단(지휘/권영옥), 부산 은파 합창단(지휘/이홍길), 한국건강대학교 온 합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1회 부산합창제’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마련해온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축제 ‘제31회 부산합창제’가 10월 22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창단(지휘/이은정), 무지개 합창단(지휘/최인숙), 미루샘 합창단(지휘/한정현), 루보체 레이드스 싱어즈(지휘/권영기), 부산 여성 합창단(지휘/김성복), 예그린 합창단(지휘/손욱), 민들레 합창단(지휘/이외균), Bella voce 합창단(지휘/조현수), 클라세 콰이어(지휘/임미진), 마린 뮤즈 콰이어(지휘/김태호), 더울림 콰이어(지휘/전상철)가 관객과 만난다.

합창제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부산 중구 시니어 코러스(지휘/이은정), 우담바라 합창단(지휘/문정재), 부산진

시장 여성 합창단(지휘/김성훈), 강서 여성 합창단(지휘/박연수), BTN 불교TV 합창단(지휘/문정재), 해운대NH 여성 합창단(지휘/이재란), 정관 여성 햇빛 합창단(지휘/권영기), 부산진구 남성 합창단(지휘/강경원), 부산외인스쿨 나눔행복합창단(지휘/권영기), 부산 로즈 콰이어(지휘/정승원), 현대나르시어 합창단(지휘/이경선), 에버그린 코러스(지휘/이정철), 센텀 합창단(지휘/이칠성)이 출연, 국내외 가곡과 가요, 세계민요 등 다양한 합창곡을 들려준다.

한편, 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과 참가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은 위촉곡 ‘부산이여 가자’로 관객들과 만난다.

일시 10월 22일(월)-24일(수)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Interview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 '부산이여 가자'

작사 **고은하**



합창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매년 축제에 어울리는 합창곡을 위촉,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2016년에 이어 시인 고은하 씨와 작곡가 최석태 씨가 다시한번 호흡을 맞췄다.

부산이여 가자 위촉곡인 '부산이여 가자'라는 곡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부산의 재도약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한정된 입지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아시아의 보고로써 부산인의 단결과 인식을 같이 하자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과의 특별한 만남 작품을 통한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은 참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무대라면 역시 지난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선보였던 '부산 맥 아리랑'입니다. 약 200여명의 뮤지션들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탄생되었지요. 아마도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숨이 시로, 시가 노래로 저를 시인으로 이끈 계기는 '향수'였습니다. 일본에서 살던 시

절, 타국에서의 생활이 귀향살이처럼 답답했던 그 시절의 제 안에서의 사그라들지 않는 그리움이 글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숨이 시로, 시가 노래로 나오다 보니 '공감'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자꾸만 키워지고 그 스토리텔링이 곡으로 연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연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녹여낸 작품들 최근 들어 두 가지 공연물의 시놉시스를 완성했는데요. 하나는 '신사임당'이고 또 하나는 '사라의 창'이라는 공연 시나리오입니다. 저의 꿈은 제가 살며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담긴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산지식,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평생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드는 일의 가치로 삼아 정진하고 싶습니다.

합창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 기대

작곡 **최석태**



노래를 통해 하나되는 부산 부산시민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인의 바램처럼 저도 이 곡을 통해 부산이 하나되는 구심력을 가지며 대중과 함께 어우르며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창제라는게 합창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무대이니만큼 거창한 이념이나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가까운 벗들과 함께 나누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편하게 들어와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가꾼다는 심정으로 작곡했습니다.

청중, 연주자와 공유하는 작품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청중과 연주자가 함께 이야기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을 작곡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지만 그중에서도 부산의 명소인 자갈치 시장을 주제로 한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인 '자갈치의 아침'이 가장 기

억에 남습니다. 작곡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합창기법을 이용해 작곡한 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 해외공연 시 부산을 알리는 주요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되면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과의 행복한 동행 부산시립합창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어떠한 장르의 합창곡도 소화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합창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몇 번의 해외연주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많은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합창단의 작, 편곡자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일이 아닐 수 없죠. 요즘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작곡그룹 '임태'와 향천회 10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페라 이야기 II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시즌 세 번째 무대를 거치며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수많은 메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 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있는 해설로 그동안 관객들을 행복환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왔다.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세차례 진행되는 이번 시즌 4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

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조운범의 해설로 오페라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8월 23일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에 이어 이번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프랑스 작곡가인 생상스와 비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허동권, 바리톤 박태환의 협연으로 치명적인 매력의 팜파탈이 등장하는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비제의 '카르멘'을 주요 아리아를 통해 소개한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를 오페라로 옮긴 생상스의 대표적인 오페라로, 이번 무대에서는 메조소프라노 아리아로 가장 유명한 '그대 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오페라 이야기 II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가 10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성에 내 마음 열리고'를 비롯해 '나는 산을 올랐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카날'을 들려준다. 오페라 '카르멘'은 뜨거운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서곡에서부터 '하바네라', '축배의 노래', '꽃의 노래', '그건 당신, 그건 내!' 등 익숙한 선율의 아리아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한국인 메조 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슈타츠포어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오페라 주역으로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테너 허동권은 이탈리아 'Vissi d'arte' 국제콩쿠르 3위, 'Brindisi' 국제콩쿠르 2위, 'E. Caruso' 국제콩쿠르 입상, 'Lecco' 국제콩쿠르 3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서울 이마에스리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수 무대에 서오고 있다. 바리톤 박태환은 2007년 이탈리아 Soresina 'Mario Basiola' 협회 선정 그 해의 베이스 가수상 수상을 비롯해 Vercelli Viotti, Rosetum, Mongini, Musica e Vita 국제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이태리 라 스칼라극장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일시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조선왕, 맥베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인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지난 2016년 초연무대를 통해 서양 고전과 우리 전통예술의 만남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선 것은 물론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특히 지난해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017’ 무대에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마지막 작품인 ‘맥베스’는 인간의 헛된 욕망으로 인한 타락과 파멸을 묘사한 걸작으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죄를 더해 가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고독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완성도 높은 대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극중 주인공인 ‘맥베스’는 11세기 스코틀랜드에 실존한 인물로 조국을 위해 용맹을 떨쳤던 애국자였으나, 마녀의 예언에 홀려 탐욕에 빠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인물로, 이번 공연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조선시대로 설정해 용포를 두른 새로운 모습의 ‘맥베스’가 등장,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보다 흥미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유명 희곡 ‘맥베스’를
연극과 창작국악, 미디어아트, 현대무용을
결합해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가 부산을 찾는다.

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조선왕, 맥베스’는 ‘맥베스 마녀의 예언의 홀리다’, ‘맥베스 미래에 대한 욕망으로 살인을 저지르다’, ‘맥베스 죄의식에 빠지다’, ‘맥베스, 모든 것을 얻고도 모든 것을 잃다’ 등 총 4장으로 나뉘며, 맥베스의 운명을 뒤흔들 마녀의 노래를 정가풍의 선율로 표현한 ‘세이렌의 노래’를 비롯해 ‘꽃과 뱀’, ‘피’, ‘자장가’, ‘그들의 길’, ‘아름다운 것은’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예능, 연극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남성진이 광기 어린 ‘맥베스’ 역

을 맡아 열연하며, 관객들에게 친숙한 배우 이영숙, 유준원 등이 함께해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평택연희단의 풍물과 미디어아트, 현대무용 등 장르 융합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연출 이우천 음악감독 및 작곡 최덕렬, 김용하
출연 남성진(맥베스), 원종철(맥더프), 임태산(턴컨왕),
강진휘(뱅쿠오), 김성진(호위무사), 김지은(맥베스 아내),
천정하(마녀), 윤하음(플루언스)

조선왕, 맥베스

일시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8: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예매, 10월 11일부터 신청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IMAGES



피아니스트 조재혁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재혁×이은결 'IMAGES'

‘대한민국의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조재혁×이은결 IMAGES’이 11월 2일 부산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무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며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문화 예술계의 두 대표 아티스트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음악과 마술이 더해진 만남 그 자체로도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통찰력과 과장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매력적인 연주자로 평가받는 조재혁은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클래식 라디오의 게스트로, 해설음악회의 해설자로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를 맡으면서 연주에 해설을 곁들인 라이브 연주 장르는 개척했으며, Live & Talk 프로그램인 ‘조재혁의 음악상자’, ‘조재혁의 아침 클래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의 깊은 매력을 선사해왔다. 2017년부터는 예술의전당 간판 프로그램인 ‘11시 콘서트’의 호스트로 수많은 관객과 만나고 있으며, 지난해 국립발레단과의 협업 콘서트인 ‘Dance into the Music’을 전회 매진시키는 등 현재까지 1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다양한 협업무대를 선보여왔다.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일루셔니의 대중

화를 이끌어온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마술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후, 다수의 국제마술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일루셔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매직콘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낸 것으로도 평가받는 이은결은 단지 보여주는 마술이 아닌 그 자신의 철학과 주제를 담은 공연을 통해 하나의 예술장르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마술의 역사를 횡단하는 그의 렉처 퍼포먼스 ‘디렉

션 Direction’은 다원예술제 ‘페스티벌 봄’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 예술공연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 시립극장에서 공연되어 ‘작가 이은결’로서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은결은 특히 정연두 작가와 ‘시네매지션’이라는 통해 일루셔니와 미술이라는 두 장르 간의 협업무대를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별의 비행’,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환상소품집’,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신비한 마술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색다른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14회 부산국제합창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2018년 축제가 10월 17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나흘간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연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해 열렸던 부산 APEC 국제합창경연대회를 전신으로 한 부산국제합창제는 올해로 14회를 맞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3개국 50개팀 2,000여명이 넘는 합창단원들이 부산을 찾아 합창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펼친다. 올해 경연에 참가하는 합창단은 국내 15개팀을 비롯해 35개팀으로, 합창제가 열리는 나흘 동안 영화의전당에서 클래식 혼성, 클래식 동성, 민속/전통, 팝 & 아카펠라, 청소년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연이 진행된다.

경연과 더불어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서는 10월 17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소향씨어터에서 사흘동안 세계 정상급 합창단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개막공연을

화려하게 열어줄 영국의 보컬 앙상블 ‘스틸레 안티코(Stile Antico)’. 역사적인 첫 내한공연을 갖는 스틸레 안티코는 지난 2005년 7월, 영국의 요크 얼리 뮤직 페스티벌(York Early Music Festival)에 혜성처럼 등장해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치른 후 뛰어난 기량을 지닌 혁신적 보컬 앙상블로 세계무대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지휘자 없이 12명의 싱어가 펼치는 르네상스 다성 음악의 향연은 신선함과 강렬함, 감동으로 전 세계 관중을 압도해왔으며, 이들의 베스트셀러 음반은 영국의 그라모폰 어워드 고음악 부문과 프랑스 디아파존 상, 네덜란드 에디슨 클래식 어워드, 독일 음반 비평가 상 수상을 비롯해 미국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도 2번씩이나 지명되기도 했다.

둘째날인 18일에는 갈라콘서트 첫 무대로, 필리핀 최고의 남성합창단 ‘코로 일루스트라도(Koro Ilustrado)’의 무대가 펼쳐진다. 코로 일



코로 일루스트라도(Koro Ilustrado)

루스트라도와 부산을 찾는 지휘자 Anna는 우리나라 합창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름으로, 필리핀의 East Chorale와 함께 참석했던 지난 2006년, 2007년 부산국제합창제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즐겁고 신나는 합창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19일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합창부문 참가팀들이 꾸미는 갈라콘서트 두 번째 무대로, 한국의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안젤루스도미니 합창단(청주)을 비롯해 드라마틱 아트대학 코러스(태국), 에반젤 송스터즈(필리핀), TNHS SPA 뮤직 코랄(필리핀), 세인트 폴 대학 트레블 콰이어(홍콩), 나인스 보이즈(인도네시아)가 출연, 싱그러운 무대를 선사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5시부터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대회의 마지막 순서이자 부산국제합창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랑프리 파이널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스틸레 안티코(Stile Antico)



- ◇ 10월 17일(수)-20일(토)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 ◇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 ◇ 070-4172-0682, www.busanchoral.org

특히 올해는 지난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된 긴 파행을 끝내고 그동안 영화제를 떠나 있었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4년만에 영화인, 관객 모두가 화합하는 영화제 정상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영작 역시 지난해보다 20여 편 늘면서 올해 영화제에서는 79개국 총 323편의 영화가 영화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상영작품 중 전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115편, 자국 외 최초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25편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부산 출신인 윤재호 감독의 장편 극영화 데뷔작 '뷰티풀 데이즈', 폐막작으로는 홍콩 액션영화계에서 가장 성공한 무술감독으로 손꼽히는 원화평 감독의 '엽문 외전'이 선정됐다. '뷰티풀 데이즈'는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한국에 온 탈북 여성의 고통 어린 삶을 그린 작품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한동안 휴식기를 가진 배우 이나영이 '하울링'(2012)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스크린 복귀작이다. 홍콩 정통 액션활극의 부활을 알리는 '엽문 외전'은 종화권의 떠오르는 액션스타 장진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자경, '옹박'



1

- 1 개막작 '뷰티풀데이즈'
- 2 폐막작 '엽문외전'
- 3 월드시네마 '어느여자의 전쟁'
- 4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 5 아시아 영화의 창 '고요한 인내'



2

2018 영화의 바다로 나아가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의 바다로 힘찬 출항을 시작한다.

- ◇ 10월 4일(목)-13일(토) 영화의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장산)
- ◇ 개막작 2만원(날개석 1만원), 일반상영작 6천원, 3D-4DX 8천원, 미드나잇 패션 1만원
-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66-9177, www.biff.kr



시리즈로 유명한 태국 배우 토니 자 등이 액션영화의 진수를 선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올해 기존 섹션 외에도 ‘부산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선보인다. ‘부산 클래식’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거장들의 보석 같은 작품들과 영화사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한 영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전들의 복원작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영화가 지닌 고유한 예술적 역량과 역사적 가치에 주목한다. 특히 거장 오손 웰즈 감독의 미완성 유작을 최근 완성해 베니스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바람의 저편’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며, 홍콩영화 ‘영춘각의 풍파’, ‘패왕별희’, 인도영화 ‘문나 형님, 의대에 가다’ 등 총 13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아시아 대표 영화제답게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아시아영화는 그 어느 해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하다. 특히 올해는 중국 거장들의 신작들이 많이 공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장이모우, 지아장커의 영화를 소개하며, 대만의 차밍량과 홍콩을 대표하는 관금봉 등 중화권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동시에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면서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은 ‘나는 약신이 아니다’, ‘아일랜드’와 같이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모던한 중국의 모습을 담은 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매년 수십 편이 국내 개봉되는 일본 영화는 관객들이 기다려온 화제작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일본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는 신선한 작품들까지 골고루 선보인다.

인도와 서남아시아는 새로이 등장하는 신인 작가들로 인해 매년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는데, 올해는 뉴 커런츠와 지식상 등 경쟁부문에 진출한 작품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올해 특별전으로 진행되는 필리핀 영화의 경우 ‘시민 제이크’의 마이크 데 레온과 ‘사랑의 시그널’의 치토 S. 로노, ‘알파’의 브릴란테 멘도자, 그리고 라브 디아즈, 브릴란테 멘도자, 킨랏 타히믹 등 필리핀을 대표하는 세명의 감독이 참여해 화제를 모은 옴니버스 프로젝트 ‘락바얀: 민중들의 행진’ 등 거장들의 신작이 유난히 눈에 띈다. 중앙아시아 영화로는 뉴커런츠에 진출한 ‘호텔 오로라’, 최초의 뮤지컬 영화 ‘성스런 나무의 노래’ 등 키르기스스탄의 도약이 돋보이며, 최근 영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영화 ‘고요한 이내’도 부산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준다.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분야의 수작을 모아 선보이는 ‘와이드 앵글’ 부문은 아시아영화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칸, 베니스, 로카르노 등 주요 영화제에서 주목한 단편 작품들이 쇼케이스에 소개되는 한편, 드라마에 충실한 극영화부터 공포, 스릴러, 실험적인 스타일까지 형식적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이 경쟁부문에 상영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동시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주요 현안과 논점을 다룬 작품과 굵직한 역사적 이슈를 다룬 작품, 아시아 다큐멘터리를 대표하는 거장의 신작과 신진 감독의 열정 넘치는 작품들이 고루 포진해 있다.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부문에는 ‘버닝’, ‘신과 함께-인과 연’, ‘공작’ 등 개봉영화 9편을 포함해 신작 8편까지 모두 17편이 선정됐다. ‘뉴 커런츠’ 부문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녀의 아픔과 성장을 담은 ‘선희와 슬기’, ‘벌새’, 유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2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인 ‘호흡’ 등 3편의 한국영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은 ‘내 청춘에게 고함’으로 데뷔한 김영남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오리의 웃음’을 제외하고 9편 모두 데뷔작으로 영화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올해 한국영화 회고전의 주인공은 1980년대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장호 감독으로, 데뷔작인 ‘별들의 고향’(1974)을 비롯해 대표작 8편이 상영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비아시아권 영화로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연출 혹은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이 도드라진다. 배우 에단 호크는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블레이즈 폴리의 인생을 그린 ‘블레이즈’를 연출했으며, 올해 선댄스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킨더가튼 티처’는 배우 매기 질렌할이 주연과 제작을 맡았다. 프랑스 영화 라인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누벨바그의 거장 장뤽 고다르의 신작 ‘이미지 북’으로, 여기에 부산국제영화제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클레르 드니, 올리비에 아사야스,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악동 가스파 노에, 피에르 실레르 등 프랑스 거장들의 신작 다수가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한 벨기에의 20대 신성 루 카스 돈트의 ‘겔’은 농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며, 동유럽의 중견 감독과 무서운 신예의 약진도 주목할 만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출품된 다양한 영화들이 올해 부산을 찾는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 음악평론가 김윤선

지난해 시작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산문화회관 브랜드 공연 ‘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네 번째 시즌 오페라 이야기가 첫무대를 가졌다.

오페라 이야기 시작을 여는 작품은 ‘오페라의 황제’ 베르디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중기의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리골렛토’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연되고 금세기 최고의 흥행보증 수표인 ‘라 트라비아타’와 주요 아리아가 다양한 매체에 소개된 ‘리골렛토’는 제목만으로도 대중들과 친숙한 오페라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에게 초점 맞춘 이 공연은 예상외로 다양한 계층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신분차를 뛰어 넘는 사랑이 비극적 복선으로 처리된 처연한 ‘라 트라비아타’ 전주곡에 이어 화려한 사교모임의 흥겨움에 취하게 하는 ‘축배의 노래’가 테너 김충희와 소프라노 김방술의 목소리로 들려졌다. 언제 들어도 흥겨운 이중창은 두 사람의 맛깔스런 음색과 화려한 창법이 돋보였다. 텅 빈 파티장에 혼자 남은 비올레타의 가창력을 발휘하는 아리아 ‘아 그대인가’를 부른 김방술은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코르티잔인 여주인공의 복잡한 심경을 서정적 음색과 화려한 기교를 안정감 있게 불러 인상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바리톤 한명원은 제르몽의 아리아 ‘프로방스의 바다와 육지’를 정갈하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아들에게 권고하는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났다.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벨칸토적이면서도 익살스럽고 진한 설득력이 깃든 사회 풍자적 오페라 ‘리골렛토’의 주요 선율들이 이어졌다.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에 등장했던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이 여자나, 저 여자나’를 재치 넘치는 가사의 내용을 가볍고 유쾌하게

부른 김충희 교수는 많은 갈채를 받았다. 애지중지 여기던 딸에게 접근한 공작을 살인청부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르는 장엄한 아리아 ‘우리는 똑같다’와 만토바의 유혹의 손아귀에 넘어간 딸을 보고 절규하며 부르는 ‘저주받을 가신이라는 종족’은 리골레토의 주요 아리아로, 오페라에 담겨진 진정한 우울감과 분노, 베르디의 진한 가족애가 스며든 절규는 대부분 오페라의 비중이 테너와 소프라노에게 맡겨짐을 뒤로하고 바리톤 한명원의 열창으로 주인공의 비통함이 절절하게 드러났다. 소프라노 김방술이 부른 질다의 ‘그리운 그 이름이여’는 높은 난이도에 반짝이는 콜로라투라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오페라의 유명세를 삼시간에 타게 한 멜로디 ‘여자의 마음’을 부른 김충희 교수의 경쾌하고 활기 띤 무대를 마지막으로 마티네 콘서트는 막을 내렸다.

2016년 콰르텟 엑스와 함께 하는 ‘파워 클래식’으로 클래식의 돌풍을 몰고 온 조윤범의 재미있고 명료한 해설로 오페라 아리아 감상의 이해와 흥미를 돋우었다. 오전시간 성악가들이 대중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성악가들은 열띤 무대를 보여준데 박수를 보낸다.

해설이 있는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이야기기가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를 통해 시선의 폭을 넓혀 진정한 예술의 가치에 감동하는 문화 향수층을 계발하는 브랜드 공연이 되길 기대한다.

내가 써내려간 역사, 내가 만들어낸 예술 2018 부산비엔날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



◇ …… 월간 예술부산 편집장 이민정

2018 부산비엔날레가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라는 주제로 냉전 시대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열’의 다양한 양상을 다룬다.

전시감독인 크리스티나 리쿠페로와 외르그 하이저는 전쟁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분열을 다루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자회견에서 전시감독들도 인정했듯 어떻게 보면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이다. 20세기 역사학의 가장 열띤 논쟁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거시사와 미시사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인이자라면 대부분이 전쟁의 상흔을 알고 있으며, 전쟁의 피해자로 겪어야 했던 이들의 말로 다 못할 슬픔과 고통을 듣고 보아 알고 있다. 이들이 삶으로 마주해야 했던 아픔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와 다를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동(情動)과 감정의 떨림이 다르고, 그들의 교감이 생성하는 에너지의 강도와 색채가 다르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작은 이야기들은 거시사적 사건의 흐름과 다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모두에게 단지 역사의 큰 축을 타고 실재했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사건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식의 일반적 관념, 거시사와 미시사의 대립구조만 제시하는 전시도 지루하기만 할 것이다.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존재하는 세계 내 분열 양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이 비록 감추어져 있던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현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작품들은 전시감독의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상에 다름 아니다.

분열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가들의 개별 작품 활동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전시는 예술 작품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역사를 목격한 이들과 해석하는 이들의 개인적 진솔로 제시한다. 이들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자 가치 판단의 기록이다.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뛰어 들어가 새로 일어난 것으로서 능동적 참여와 개입의 행위를 드러낸다. 예술가의 시선에 따라 해석은 때론 희망적이기도 하고, 때론 비관적이기도 하며, 냉소적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신경질적이고 불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표현 양상이 어찌하든지 전시감독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교조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해석과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다시 넘어온다. 관객은 객관적 사실에 예술가의 해석을 비추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본다. 물론 그 반대의 과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개인의 삶과 내면에서 일어난 분열의 양상은 또 다른 분열과 화해의 지평으로 그 국면을 달리 한다. 객관적이라 여겨지던 거시적 역사는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다. 예술은 역사의 끊임없는 생성을 유도한다.

이 시점 즈음 다시 한 번 개인과 집단, 지역과 지역이 만들어낸 분열된 영토와 경계선 상으로 돌아가 본다. 이제 다시 만난 거시사, 그것이 보여주는 분열과 경계의 양상은 사실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해석이라는 개인의 참여가 없는 역사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나’와는 관계없는 ‘그곳’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018 부산비엔날레는 ‘내’가 써내려간 역사, ‘내’가 만들어낸 예술이 있는 자리이다. 예술을 통해 역사적 판단을 실험하고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곳, 역사가 피어나는 생성의 자리이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3. 망(忘)

일 시 10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세 번째 무대.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우리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주망태(孤酒忘態)’의 세 번째 단어인 ‘망(忘)’을 주제로 현실의 괴로움과 슬픔을 잊고자 하는 예술가의 고뇌와 동양의 철학을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소프라노 김성혜를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I

일 시 10월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미래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며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유망주 음악회’. 이번 무대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를 갖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와는 다른 실내악 무대로, 음악활동을 함께 해온 단원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장르의 실험적인 실내악 무대에 도전한다.

피아노트리오에서부터 오보에, 바순, 피아노 트리오, 클라리넷 트리오, 스트링퀸텟 등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 무대와 독주악기로 자주 만날 수 없는 더블베이스, 트롬본의 매력적인 선율을 들려준다.

6일 출연팀

라체트리오(바이올린 김수진, 첼로 성아란, 피아노 최우림)
오보에, 바순, 피아노 트리오(오보에 정은희, 바순 이수빈, 피아노 장유진)
플루트&마림바 듀오(플루트 김경희, 마림바 박찬식)
스트링퀸텟 Um Quintet(바이올린 박혜은, 최어진, 비올라 정지원, 첼로 이현아, 더블베이스 하승연)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트리오 올림나장조 작품 11
벨랑/오보에,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3중주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드보르작/스트링퀸텟 제2번 사장조 작품 77

7일 출연팀

KL Two Violins(바이올린 이하원, 강운선, 피아노 최우림)
Clarinet Trio(클라리넷 김공빈, 바순 장원영, 피아노 최우림)
Trombone Quartet ‘Low Brass Ensemble’(트롬본 박민균, 염다운, 김성준, 김정훈)

프로그램

M. 모스코프스키/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베토벤/클라리넷 3중주 올림나장조 작품 11 등

광주 에꼴드플루트앙상블과 부산 나눔플루트가 함께하는 문화교류 음악회
동양과 서양

일 시 10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윤예술기획 010-9025-2012



200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광주 에꼴드플루트 앙상블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되어 그동안 나눔음악회, 해외교류음악회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나눔플루트가 함께하는 문화교류 음악회.

‘동양과 서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국, 아시아 음악과 재즈, 팝 등 여러 장르의 서양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동서양 음악의 대비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영호남의 플루티스트들이 현존하는 작곡가의 현대곡을 초연으로 들려준다.

- 지휘, 음악감독/이현경(에꼴드플루트앙상블 단장)
- 객원지휘/장재호 ● 협연/첼리스트 박문경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펫 독주회

일 시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634-2243



지난 2002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무대. 러시아 그네신대학과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국제 트럼펫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한 바 있는 로카렌코프는 러시아 말리 주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트럼펫 수석, 볼쇼이극장 트럼펫 수석,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로카렌코프의 제자들로 구성된 DM-tree가 출연, 그의 애창곡인 ‘My way’를 들려준다.

- 피아노/배연주 ● 특별출연/DM-tree

2018년도 장애인복지증진 및 행복나눔 콘서트

일 시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1: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남구장애인복지관 622-2656



남구지역 등록 장애인 13,023명과 그 가족들이 복지증진 및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간의 행복나눔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마련하는 2018년 행복나눔 콘서트.

풍물패 굴렁쇠, 실버하모니카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권리헌장 낭독, 유공자시상 등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마치는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ExMUSE밴드, 트로트가수들이 출연,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각 가정에 쌀 10kg를 지원한다.

- 사회/MC 오대몽

창단25주년 기념 제4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문의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클래식의 메카 베를린 필 하모니홀,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동경예술극장,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세계적 연주홀에서 한국 지휘자를 각인시킨 부산출신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특히 2014년 부산 민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서울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2006년, 2007년,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축하공연을 비롯해 2007년, 2014년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음악

제21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010-4909-7444



지난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창단된 부산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20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협주곡의 밤,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 KBS FM Concert, 부산 MBC 목요일음악회 등 10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잘 조율된 현악합주의 선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이용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KBS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영미의 협연으로 바흐와 코렐리, 브리튼의 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김영미

회, 2008년, 2012년 부산국제음악제 신년음악회 등 국제적 행사의 무대에 다수 서왔다.

창단 2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냉철한 음악적 해석 능력과 환상적인 기교를 갖춘 보기도분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호평을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의 협연으로, 우효원 곡 ‘오! 코리아’를 첫 곡으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세계 초연으로 들려주는 ‘오! 코리아’는 국립합창단 전임작곡가로 활동하며 한국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합창음악으로 세계 합창계에 널리 알려진 작곡가 우효원의 창작곡으로 하늘, 땅, 민족의 숨결, 해, 달, 물, 풍요, 그리고 생명력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원(UNIST) 교수로 있는 협연자 이종은은 예원학교 재학 중 도미, 뉴욕 줄리어드 예비학교 및 줄리어드음대(학사), 핀란드 시벨리우스 음악원(석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전문연주자과정), 미국 예일대(Artist Diploma), 뉴욕 스토니부룩음대(박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미국, 유럽 및 국내무대를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프로그램

우효원/오! 코리아 [세계초연]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차이콥스키/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일 시 10월 16일(화)-12월 23일(일) 오전 11:00
 (월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마음 착한 아기 개구리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

지난해 가족극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의 세 번째 정기 상연작으로, 매년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창작극을 선보여온 극단 더블스테이지가 백석 시인의 동명의 동화시를 각색해 무대에 올린 ‘개구리네 한술밥’은 아무리 바쁘고 내 할 일이 있어도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개구리 친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교훈을 전해준다.

제46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일 시 10월 16일-17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5773-9190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46번째 정기연주회.

16일(화) 모던 피아노 콘서트

15인의 피아니스트가 현존하는 작곡가들의 한국 초연, 부산초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작품들을 Solo에서 8Hands의 연주로 들려준다.

17일(수)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이야기

오페라의 거장 로시니의 서거 15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피아노로 편곡된 오페라 작품들을 대선편 피아니스트에서부터 신인 피아니스트까지 64인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美&樂 페스티벌

일 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美&樂 페스티벌’.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과 함께 궁중복식에서부터 민속복식, 창작복식 등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TBN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원향춤 보존회, 부산예술단,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과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가무악(歌舞樂)의 향연 속에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김영미 교수 퇴임기념 연주회 Love Concert

일 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뛰어난 성악가들을 배출해온 고신대학교 김영미 교수의 퇴임을 맞아 제자들이 마련하는 퇴임기념 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아나체크 오스트라바 콘서바토리 등에서 음악적 견문을 넓혀온 김영미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음악과 명예교수, 솔 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악가 김은희, 박연경, 김현주, 김지호, 염상운, 박대용, 이영환, 김일석 등이 출연, 헨델, 베네딕트, 토스티, 로시니, 구노, 마스네 등 주옥 같은 가곡들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서유희 독창회

일 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010-3267-8182



경성대학교 음악과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성가대 지휘자, 러시아음악연구회 회원, 라보레무스 아카데미 대표로 있는 소프라노 서유희의 독창회. 서유희는 그동안 러시아 립스키 코르사코프 기념관 독창회, 돔 말뤼트끼 2인 음악회, 간제르트 클래식 음악의 밤 등 러시아,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귀국,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가곡을 비롯해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수진 ● 클라리넷/최우선
- 테너/홍정표
- 찬조출연/김민지, 서조은, 서고은, 김민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 황제 vs 영웅

일 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한명으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황제 vs 영웅'.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일곱 번째 무대이기도 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와 작곡가 슈만으로부터 '최고의 교향시'라 극찬받았던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들려준다.

12소프라노 가곡과 아리아의 밤 La luce e il sale

일 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소프라노 김유섬 창원대학교 교수, 박은주 부산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소프라노 오미선, 엄남이, 변향숙, 김유진, 윤지영, 박현정, 김시하, 구민영, 조운정, 오예은 등 12명의 소프라노가 펼치는 특별한 무대. 가을밤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우리 가곡과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조지훈/고풍의상
베르디/오페라 '아이다' 중 '이기고 돌아오라'
이원주/연 등 수곡
● 피아노/홍지혜, 이승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일 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동시대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대표하는 실내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부산공연.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으로 각광받고 있는 르노 카푸송은 전 세계 주요 공연장과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독주회와 실내악, 협연 무대를 넘나드는 활발한 연주를 선보이며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시대 음악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고전주의 음악을 이끌었던 두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며진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1회 부산합창제

일 시 10월 22일(월)-24일(수)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마련해온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축제 '제31회 부산합창제'. 지난 1985년 시작된 후 올해로 31회를 맞는 부산합창제는 그동안 다양한 합창단을 발굴, 서로 교류하며 공연의 장을 펼침으로써 지역 합창음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부산합창제는 매년 참가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역대 합창제로서는 최다 참가팀인 43개 팀이 참가, 합창으로 하나되는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효원국악관현악단, 세계로 길을 열다

일 시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효원국악관현악단 010-3859-4225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꿈꾸며 세계의 연주인들과 함께하는 효원국악관현악단의 특별한 무대 '효원국악관현악단, 세계로 길을 열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효원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환경사랑음악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국악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악연주로 듣는 클래식 모음곡을 비롯해 중국과 몽골의 전통현악기인 고쟁, 후치르 연주자인 팽려영과 P. 오토곤바타르, 그리고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협연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백규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도의 날 기념 특별연주회 독도 다섯 번째 이야기 '나의사랑 독도야!'

일 시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독도의 날 기념 특별연주회 '나의 사랑 독도야!'.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이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부산북구소년소녀합창단, 해군작전사령부군악대가 출연, 독도를 소재로 한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들로 독도의 의미를 되새긴다.

- 지휘/이건륜(수석지휘자)
- 지도/이영옥, 노금선, 노민지

LOVE CONCERT

일 시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LOVE CONCERT 010-7330-0377, 010-3471-8943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음악을 나누고 음악을 통한 사랑과 나눔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LOVE CONCERT.

특히 이번 무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재능 기부 음악회로, 필리핀의 afterschool 건립을 위한 음악회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몬티/차르다시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의 춤곡
헨델/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Comfort Ye & Every Valley'

골드드 볼링/센티멘탈 등 수곡

- 연주/김은주, 신상준, 박선욱, 이동영, 김윤희, 박운규

독일가곡연구회 제53회 정기연주회 가을에 들려주는 독일음악 오딧세이

일 시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단체 50% 할인)
문의 독일가곡연구회 010-3645-7953, 010-9114-1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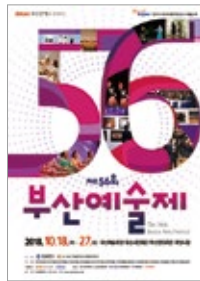


지난 1987년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53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브람스, 슈만, R. 슈트라우스, 바흐, 멘델스존, 레하르 등 독일 작곡가들의 가곡 및 오라토리오,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강소영, 김현주, 박나리, 설은경, 이민희, 정혜민
- 테너/김종희, 이은민
- 베이스/조창현
- 바이올린/임재홍
- 클라리넷/유지훈
- 피아노/공소현, 김경미, 김성희, 박소미
- 바리톤/김중화, 최강지
- 클래식기타/고종진
- 첼로/윤원욱
- 트럼펫/박승훈

제56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춤, 생명을 빛다'

일 시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무용협회 632-5116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6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춤, 생명을 빛다'.

부산과 부산의 해외자매 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 대만 가오슝 등 3개 도시의 무용가들이 펼치는 춤

의 향연으로, 부산에서는 청화춤보존회의 '동래고무'와 J발레단의 발레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프로젝트 광의 창작무용 '암묵적 침묵', 가오슝에서는 예술장인으로 불렸던 대만 기생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다당포크댄스그룹의 '예단풍화(藝旦風華)', 물과 불이 공존하는 특이한 자연현상을 전통무용 의상인 물한삼을 활용해 완성한 '수화동원(水火同源)' 등 2개 작품을 선보인다.

CBS 콘서트 김석훈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일 시 10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CBS 636-0050



부산CBS교향악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마련하는 CBS 콘서트 '김석훈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지난 2003년 11월, 부산 최초의 민간방송교향악단으로 창단된 후 이듬해인 2004년까지 활동해오다 오랜 공백기간을 거쳐 올

해 새롭게 재창단한 부산CBS교향악단은 앞으로 교향악을 통한 선교와 클래식의 대중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나눔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배우 김석훈의 해설로 부산시민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편안하게 이끈다.

- 지휘/정두환(상임지휘자)
- 소프라노/오미선
- 테너/양승명, 차경훈
- 바리톤/오세민

부산문화회관

2018 부산음악축제 III
고태국 음악비 건립 1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www.bamssu.or.kr



성악가이자 합창 지도자, 음악교육가로 활동했던 故 고태국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음악비 건립 10주년을 맞아 부산음악협회가 마련하는 기념음악회. 해방 직후 합창음악에 열정을 쏟아 다수 합창단을 창단, 지휘를 맡아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한편, 척박했던 부산지역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고태국 선생은 지난 1955년 부산 최초의 음악교수가 된 후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유능한 음악인들을 양성하며 부산음악 발전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음악계 후학들이 선생의 고결한 뜻을 되새기며 마련하는 무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안은지 바이올린 독주회
춤, 그리고 재즈의 향기

일 시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안은지 010-5577-3902



미국 매네스 음악대학(석사)과 보스턴 대학(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실내악 그룹 The Blossom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은지의 세 번째 독주회. '춤, 그리고 재즈의 향기'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드뷔시, 바르톡, 비외탕의 작품을 중심으로 왈츠, 폴로네즈 등 유럽의 춤음악과 루마니아의 민속 춤음악을 소개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반댄스(Barn Dance)와 컨트리음악, 그리고 래그타임 등을 엮을 수 있는 미국 작곡가 아이브스의 소나타 제2번, 귀에 익은 멜로디와 짙은 재즈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러시아 작곡가 프롤로프의 '거신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주제에 의한 콘서트 판타지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영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오페라 이야기 II'

일 시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세차례 진행되는 이번 시즌 4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조운범의 해설로 오페라 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오페라 이야기'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프랑스 작곡가인 생상스와 비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허동권, 바리톤 박태환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비제의 '카르멘' 주요 아리아를 통해 소개한다.

2018 제10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일 시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홈페이지 www.knn.co.kr 신청자에 한해 입장)
문 의 KNN 850-9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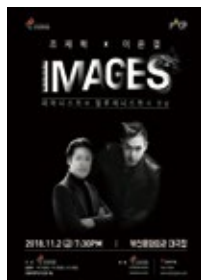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특히 올해는 국공립 오케스트라 사상 첫 여성 수장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온 지휘자 성시연이 지휘하고 베토벤 서거 19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 유수의 매체들로부터 섬세하고 깊은 연주, 빛나는 해석이 돋보인다는 격찬을 받는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재혁×이은결 'IMAGES'

일 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한민국의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특별한 무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며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두 대표 아티스트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음악과 미술이 더해진 만남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조재혁은 피아니스트로서뿐만 아니라 클래식 라디오의 게스트로, 해설음악회의 해설자로 그리고 다채로운 장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은결은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일류선의 대중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김정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섬세하고 탄탄한 테크닉과 다채로운 음색, 치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매력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은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독일 로버트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김정은은 한독 브람스협회 콩쿠르 1위를 비롯해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정은은 현재 AYAF 앙상블, 피아노듀오 OPUS-K 앙상블 멤버로 활동중이며,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국립무용단 ‘묵향’

일 시 10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국립무용단 레퍼토리 ‘묵향’.
무용가이자 안무가였던 고(故) 최현의 유작인 ‘군자무’를 바탕으로 윤성주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안무하고, 정구호가 연출한 ‘묵향’은 지난 2013년 초연 무대를 통해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춤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 우리 춤이 지닌 고유의 미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세계무대에 알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작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서무(序舞)와 종무(終舞), 그리고 매난·국·죽 총 6장으로 구성된 ‘묵향’은 사군자가 상징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군자의 시선을 담고 있다.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제56회 부산예술제 개막공연
2018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6회 부산예술제 개막 축하공연 ‘2018 가곡과 아리아의 밤’.
지휘자 정두환이 이끄는 정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이민희, 김현애, 테너 임성규, 조윤환, 양승명, 차경훈, 바리톤 박대용, 오세민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소프라노 루이 샤오, 테너 쉰 비아오 등 부산의 해외자매 도시인 중국 상하이 성악가들이 출연,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등 한국가곡과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정두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 부산공연

일 시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유럽을 대표하는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VOLLOSI)’ 부산공연.
지난 2010년 ‘뉴 트래디션 페스티벌(New Tradition Festival)’로 데뷔한 후 유럽 전역에서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거머쥐며 큰 사랑을 받아 온 볼로시는 지난해 유네스코가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세계적인 음악 마켓’으로 평가한 세계 최고의 월드 뮤직 마켓인 위맥스(WOMEX, World Music Expo)의 오프닝 쇼케이스 무대에 선 바 있다.
특히 볼로시는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록, 팝, 집시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왔다.

제56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전통음악교류한마당

일 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6: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국악협회 644-5211, 010-3550-7887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6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전통음악교류한마당’.
부산국악협회 회원들의 가야금병창과 남도민요, 선소리, 경기민요 등 다양한 우리 소리와 부산의 해외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 연주자들의 사미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 사회/정주연 ● 연출/송재운
● 사미센 연주/Kineya Yakichi, Kineya Yakichiyuu, Kineya Yakichimi, Kineya Yakichino

한얼악회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얼악회 462-017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 산조 이수자로 있는 대금주자 채수만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결성된 국악동호회 ‘한얼악회’의 12번째 정기연주회.
창단 후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얼악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오사카 국제민족음악제, 창원 성산아트홀 개막연주 등 각종 무대에서 우리 음악 사랑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금, 중금, 가야금의 기악 합주에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대금과 가야금 합주 ‘천년만세’, 대금 합주 ‘여행길’, 가야금 이중주 ‘황금산 백도라지’, 대금 합주 ‘강백천류 대금산조’, 대금 합주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가야금 합주 ‘성금련류 가야금 산조’, 중금과 가야금 합주 ‘초소의 봄’, 대금 합주와 민요 ‘남도 뱃노래, 농부가, 잦은 농부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

일 시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무료(사전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예매, 10월 11일부터 신청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세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를 연극과 창작극악, 미디어아트, 현대무용을 결합해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
주인공인 ‘맥베스’는 조국을 위해 용맹을 떨쳤던 애국자였으나, 마녀의 예언에 홀려 탐욕에 빠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인물로, 이번 공연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조선시대로 설정해 용포를 두른 새로운 모습의 ‘맥베스’가 등장,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보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예능, 연극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남성진이 광기 어린 ‘맥베스’역을 맡아 열연한다.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원진경 첼로 리사이틀

일 시 10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풍부한 음색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연주자'라고 호평받고 있는 첼리스트 원진경 리사이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졸업 후 첼리스트 조영창의 권유로 도독, 예선 폴크방 국립음대(학사, 석사)와 쾰른 국립음대(석사, 최고연주자과정)를 최우수 성적

으로 졸업한 원진경은 독일 본에서 열린 Hfmt Chamber Music 콩쿠르에서 Trio Amis로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입증받기도 했다. 원진경은 지난 2017년 3월 귀국독주회를 가진 후 현재 선화예술중고와 인천예고, 부산예고, 연세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허로타 순지(수원대학교 교수)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0일(제659회) 서혜리&김나래 듀오 콘서트
부산예고 및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인 피아니스트 서혜리, 첼리스트 김나래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17일(제660회) 이야기가 있는 김선영 피아노 독주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와 프랑스 세르지푸두아스 국립음악원(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아마하 콩쿠르 만장일치 우승, 프랑스 문화성 파리음악콩쿠르

만장일치 1등, 프랑스 루앙 국제콩쿠르 1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영의 이야기가 있는 피아노 독주회.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골든 스윙 밴드

일 시 10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5만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어쿠스틱, 아날로그의 질감으로 추억하는 스윙 재즈 스탠더드의 만찬, 골든 스윙 밴드 초청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재즈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장 영광스럽던 순간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다시금 이야기하고자 결성된 북고풍의 정통 재즈 밴드 '골든 스윙 밴드'는 지난 1940년~50년대 낭만과 예술이 가득한 뉴욕 뒷거리의 화려한 풍경을 담아내며, 마치 재즈의 황금시절이었던 그곳을 거니는 듯한 상상을 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골든 스윙 밴드와 함께 쉽고 흥겨운 재즈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 연주/김민희(보컬), 최연주(피아노), Joon Smith(정준영, 기타), 최성환(베이스),곽지웅(드럼)

24일(제661회)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Harmony'

신라대학교 교수 조현미를 리더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서은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이성호, 트리오 하나리 첼로 단원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의 무대.

- 협연/무미건조(피아니스트 조현선, 유영욱, 김병기, 윤재웅, 육은하)



31일(제662회) 토다와 함께하는 이기녕 작곡발표회:부산 노래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작곡과(석사), 인디애나대학교 작곡과(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이기녕의 작곡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토다의

연주로 부산을 주제로 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1부/을숙이의 노래, 구포로 가는 길, 하루종일 광안리에는 바람이 부네, 붉은 비

2부/Nu Rain

- 연주/윤혁성(드럼), 정우진(베이스), 정영준(기타), 변진혁(보컬 및 건반), 허유진(보컬), 진형준(피리), 윤해승(해금), 김혜진(바이올린)

박지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한국피아노학회, 피아노음악연구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뉴오협회, 독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지은 독주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학사, 석사),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뤼벡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박지은은 다수의 실내악무대와 현대음악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지은은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예술영재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해설/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이명로 첼로 독주회

일 시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이명로 010-5029-5807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폴란드 국립 쇼팽 음대에 재학중인 첼리스트 이명로 독주회.

해운대 청소년오케스트라, Iwasaki Chuhei orchestra na Prazske konzervatori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이

명로는 그동안 4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와 협연, 체코 바츨라프하벨 대통령 추모 기념 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드보르작 기념 음악회, 대구 MBC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장하은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아리랑_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일 시 10월 11일(목)-1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관람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가무악총체극 '부산아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부제로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한 예술가의 삶을 아리랑으로 녹여낸 '부산아리랑'은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해주아리랑 등을 엮은 '아리랑 별곡', 소리꾼 주인공이 기량을 갈고닦는 과정을 표현한 '팔도아리랑' 등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새롭게 작·편곡한 음악과 동래학춤, 김진홍 지전춤, 이매방 살풀이춤에 지역의 전통춤을 토대로 안무한 춤을 선보인다. 극단 배우창고 상임연출가인 박훈영이 연출하고 전

부산무용협회 회장을 역임한 서지영이 무용감독, 국악밴드 헤아림 음악감독인 김성경이 음악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는 오디션을 거친 지역 예술가 40여 명을 비롯해 윤여숙(강태홍류 살풀이춤), 김갑용(동래한량무) 등 2세대로 춤맥을 잇는 무용가들이 출연해 지역의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중·일 문화교류라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취지에 걸맞게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하얼빈의 얼후 연주자 리빈(하얼빈 오페라하우스 민악단 수석), 일본 가나자와의 사미센 연주자 혼다 린(츠가루사미센전국대회 일반여성 부문 준우승)이 출연,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총제작/김동석
- 연출, 구성/박훈영(극단 배우창고 대표)
- 무용감독/서지영(서지영무용단 예술감독)
- 음악감독, 작·편곡/김성경(헤아림 음악감독)
- 출연/이하나, 이인태
- 특별출연/윤여숙, 김갑용, 리빈(얼후, 중국 하얼빈), 혼다 린(사미센, 일본 가나자와)
- 군무/남선주, 조현영, 정소연, 강정윤, 정현주, 강현정, 박예솔, 김정민, 백소희, 이다영, 최수민, 김은진
- 연주/김은경(대금), 김성경(피리), 박현정(가야금), 주운정(거문고), 고예솔(해금), 김고운(아쟁), 박우정, 이현서(타악), 박현철(기타), 고보성(베이스), 서호영(신시사이저), 김진훈(드럼), 이바디풍물패(최의철, 김경화, 전상오, 하동호)

제13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창작가협회 323-8575, 010-5541-8576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협회에서 들려주는 제13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제1부 그리운 추억, 제2부 애틋한 사랑, 제3부 내일의 희망이라는 부제로 독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회장/김성덕
- 성악/황윤정(소프라노), 장진규(테너), 김태희(금강초동 6학년), 박운정(반주)
- 연주단체/항기나는 노래나무(지휘/김지숙), 무지개여성합창단(지휘/최인숙), 단비울남성양상블(지휘/강성철), 토브합창단(지휘/이일경)

제64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시리즈 II 말러, 천상의 삶을 노래하다

일 시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기초 지자제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으로서 첫 도전으로 큰 화제를 모은 을숙도문화회관의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악보를 파기 하라는 말러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발표했던 말러의 마지막 교향곡인 제10번 '미완성교향곡'과 그의 교향곡 제2번, 제3번과 함께 3부작을 이루는 곡으로 세 곡 중에서 가장 밝고 간결하며 아름다운 교향곡인 제4번 '천상의 삶'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김민영
- 지휘/정병휘
- 협연/소프라노 박은주
- 연주/부산시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III

일 시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마련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세 번째 무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MM)와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원에서 Artist Diploma,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는 세계 유수 공연장에서의 독주회와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 소나타 제15번 '전원', 제16번, 제17번 '템페스트', 제18번을 들려준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쇼팽과 폴란드 작곡가의 밤

일 시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현재 폴란드 국립 쇼팽음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라도스와브 솅차크(Radoslaw Sobczak)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폴란드 국립 쇼팽음악원(현. 쇼팽음악대학교)을 수석입학 및 수석졸업한 라도스와브 솅차크는 지난 1999년 자브제(Zabrze)에서 열린 쇼팽 피아노콩쿠르 1위, 2008년 First European Piano Competition 2위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음악가 쇼팽과 파데레프스키, 우카세프스키 등 '쇼팽과 폴란드 작곡가의 밤'으로 마련된다.

기타공연장

금정문화회관 아트뱅크코리아 공동기획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 연주회 시리즈
: 슈베르티아데 | 실내악의 밤

일 시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홈페이지 신청)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금정문화회관과 아트뱅크코리아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슈베르트의 밤(슈베르티아데)'. 총 다섯 번의 시리즈로 진행되는 '슈베르트의 밤'은 부산, 서울 및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견음악가들과 실력 있는 신인들이 참여하여 슈베르트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무대를 선사한다.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박정희, 권준, 이은옥, 서은아, 조무중, 이현지, 이일세, 김근혜, 오현진, 윤민우 등 부산의 중견 연주자들과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실내악곡인 피아노 5중주 '송어', 피아노 트리오 제2번, 현악4중주 '로자문데'를 들려준다.

9th 정주연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KNN방송교향악단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미, 듀케인대학교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뉴욕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0년 귀국한 정주연은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플루트 소나타 제5번 마단조 BWV 1034
야곱 가데/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탱고 판타지 등

제7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일 시 10월 15일(월)-16일(화) 오후 8:00, 17일(수) 오후 7:00, 18일(목)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17일(수)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문화와 예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7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부산영상음악협회, 작곡모임 잉태, 전자음악협회, 부산작곡가협회, 향천회 등 부산지역 5개 작곡단체가 출연, 합창 및 가곡,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8 두레라움 명품 클래식 시리즈 V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일 시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모차르트, 그리고 거장 네빌 마리너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음반 '모차르트' 발매를 기념해 마련하는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거장 네빌 마리너 경의 제안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녹음을 시작했던 손열음은 2016년 가을, 마리너가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네빌 마리너의 마지막 녹음이 된 협주곡 제21번과 그를 추모하며 녹음한 환상곡 다단조(KV475), 독주곡으로 음반 '모차르트'를 출판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 협주곡 제21번에 협주곡 제8번을 더해 모차르트만이 가지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 연주/솔리스트 오케스트라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38회 프롬나드 콘서트 가을에의 초대

일 시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1~5



기업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매월 마련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10월 무대. 프롬나드 콘서트는 기업의 리더들이 릴레이 후원하는 부산 경제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이어가며 부산상공회의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가을에의 초대'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협연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담은 아름다운 곡을 들려준다.

제12회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예술기획 010-4909-7444



클래식에서부터 경음악까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아르고 윈드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아르고'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이아손이 최고의 용사 50명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갈 때 타고간 배의 이름으로, 관악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는 단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진희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제65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스와나리아키코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세련되고 매혹적인 음색, 따뜻하면서도 강한 호소력을 지닌 일본의 바이올린리스트 스와나리아키코 초청으로 마련되는 제 65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1990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이자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2위 입상으로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스와나리아키코는 그동안 BBC 필하모닉, 오슬로 필하모닉,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체코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었다. 스와나리아키코는 2012년 NIPPON 국제음악제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나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 정관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일 시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단장 박준주 010-8836-1536



음악을 사랑하며 여가를 즐기는 초, 중,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나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정관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합동무대. 9번째 정기연주회이기도 한 이번 무대는 더위에 지치고 힘든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여유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클라리넷, 첼로 협연 및 각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연주로 관객과 만난다.

금정문화회관·아트뱅크코리아 공동기획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 연주회 시리즈 : 슈베르티아데 II 백조의 노래

일 시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홈페이지 신청)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금정문화회관과 아트뱅크코리아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슈베르트의 밤(슈베르티아데)'.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3대연가곡' 중의 하나인 '백조의 노래'를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환이 들려준다.

조윤환은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회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KE),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마이스터 액자멘(ME)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와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 피아노/권준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콘서트 군복을 입은 클래식, 독일 음악여행

일 시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2018년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마련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올해 브런치 콘서트는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과 함께 유럽 세계의 문화와 역사 체험의 음악 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세계여행 콘서트로, 영화 속에서 그려낸 세계 명소에서의 이야기, 종합예술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이야기, 수백 년 역사가 담긴 박물관과 미술관 이야기, 예술가들의 고향과 음악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0월에는 '군복을 입은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독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2018 가영 콘서트

일 시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무료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 가영의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기도 한 가영은 매년 독주회를 비롯해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팝스 콘서트, 아나운서 이금희의 해설로 진행되는 '친절한 금희씨, 베토벤을 만나다' 전국순회 연주, 성남 마티네 콘서트, 예술의전당 크로스오버 페스티벌, EBS 공감, KBS 클래식 오디세이,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활동은 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반도네오니스트 진선의 특별출연으로, 가영의 자작곡을 비롯해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황안나, 김태희, 김진경, 김진정

제17회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10월 30일-31일 화-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대학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키우고자 매년 마련하고 있는 대학교향악축제 2018년 무대로, 올해는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동아대학교와 동의대학교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선다.

제5회 을숙도 대학가곡제

일 시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지역 7개 음악대학 성악전공자들에게 무대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향토색 깊은 창작가곡을 발표할 수 있는 제5회 을숙도 대학가곡제.

기타공연장

연극 | Play

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6월 21일(목)-10월 28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 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년지기 사고뭉치 세 친구가 별이는 소동을 통해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연극 '불편한 타이밍'. 주인공 정민은 아내 미경이 처가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호와 강건을 집으로 초대하고, 광란의 밤을 보낸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주인 정민은 실종 상태. 오호와 강건은 정민을 찾아 보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시체와 정체모를 여자. 그리고 난데없는 조폭까지 설쳐대는데... 어제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연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일 시 9월 20일(목)-2019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지난 2011년 초연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연극 '작전! 임이라 지우기(웨딩브레이커)'의 리뉴얼 버전인 '수상한 흥신소 3탄'은 자신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과거 온 17세 소녀 임이랑이 별이는 요절복통 엄마, 아빠의 연애 휘방 대작전을 그린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극으로, 그동안 탄탄한 스토리와 믿고보는 배우들의 연기로 누적관객 50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연극 이프온리

일 시 8월 31일(금)-10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플레이어부산 1600-0316



감성을 자극할 특별한 3일간의 이야기 '이프온리'. 10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뀐다.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제56회 부산예술제 우수(秀秀)한 연극 초청전

일 시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오후 3:00, 6:00, 24일-25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2개 작품 통합권 1만5천원)
문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제56회 부산예술제를 맞아 부산연극협회에서 선보이는 秀秀한 연극 초청전.

극단 동백 '할매 어데가노?' 10월 19일(금) 오후 7:30, 20일(토) 오후 3:00, 6:00 홀로 남겨질 손녀를 위해 옛날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려는 할매의 지극한 사랑과 가슴아픈 이별을 담은 작품.
● 작/공동창작 ● 연출/야효운

극단 따뜻한 사람 '컨테이너' 24일(수)-25일(목) 오후 7:30 세상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컨테이너 속에 숨어 버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생각에 갇혀 살고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 작, 연출/허석민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9월 14일(금)-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디오로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지난 1998년 초연 후 서울 대학로의 오픈 공연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민연극'이라는 칭호를 얻은 영국 극작가 레이쿠니의 '라이어'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라이어 튀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는 택시를 타고가던 중 야쿠자의 돈가방과 자신의 서류가방을 바꿔두고 만다.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100억원 상당의 돈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영호는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옆친데 달친 격으로 영호를 의심하는 형사들로 인해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며 영호를 압박하는데...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연극 사랑별곡

일 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2만원, R석 1만원, A석 5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 '사랑별곡'. 젊은 시절 자신을 구하다 불구가 된 김씨를 마음에 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식에게 희생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순자에게 어느날 김씨가 찾아와 함께 떠나자 하고, 오랜만의 해후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집안일 걱정에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뛰어난 희곡 구성과 따뜻한 시선, 감각적인 연출, 그리고 이순재와 손숙, 두 거장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사랑별곡'은 시골 장터에서 평생을 보낸 '순자'와 그를 구하다 불구가 된 '김씨'의 가슴 뭉클한 순애보를 그린 작품이다.

콘서트 | Concert

제5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일시 10월 30일(화)-11월 3일(토)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J석 4만원, R석 3만5천원, S석 2만5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부산 유일의 상설 재즈콘서트 'JAZZ 와인에 빠지다'와 함께 펼치는 해운대재즈페스티벌 2018년 무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새로운 재즈뮤지션들을 발굴 육성하는 부산재즈루키밴드 콘테스트 결선(10월 30일)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의 재즈밴드 'the frankie sixes(10월 31일)', 깊은 영혼의 올림 '개어울'의 '정미조 밴드(11월 1일)', 한국적 재즈의 자존심 '말로(11월 2일)', 수식어가 필요없는 가수 'BMK(11월 3일)' 등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즈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가을 그리고 그리고 2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2일(673회) 피아노의 선율의 설레임
16일(674회) 현악기에 실려온 가을 이야기
23일(675회) 가을 커피향 같은 실내악 이야기
30일(676회) 이달의 책읽기/저자와의 만남_수필가 신창선 5번째 수필집 '버킷리스트 여행'(전망)

행사 | Event

시네바움·아트홀바움 10월 아카데미

일시 1일(월), 2일(화), 15일(월), 16일(화), 22일(월), 23일(화), 29일(월), 30일(화)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 1일(월)** 오후 7:30 일본의미학(11) 모노노아와레(ものあはれ)란 무엇인가?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2일(화)** 오후 7:30 셰익스피어읽기(4) 메멘토모리, 왜상화법(Anamorphosis) 햄릿 'To be or not to be'
강사/김해룡(영문학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외래교수)
- 15일(월)** 오후 7:30 경계에서-한국, 프랑스, 그리고 영화
강사/Sebastien Simon(영화연출가, 영화제프로그래머, 모데레이터 차민철(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 16일(화)** 오후 7:30 어떻게 살 것인가? 즉문즉답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시 9일(화), 10일(수), 19일(금), 22일(월)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9일(화) 오후 7:30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4강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생애와 음악' 19세기 오페라의 전통을 꽃피운 최후의 대작곡가로 평가받는 작곡가 푸치니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알아보는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34번째 강좌.

- 10일(수)** 오후 2:00 미술 인문학 특강 '추상화의 거장 칸딘스키의 작품세계'
강사/이은미(뮤지엄 에듀케이터)
- 19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9강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변 도시'
중세시대부터 느슨한 연맹체로 발전한 독일은 지역

- 강사/이부현(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인문학연구소 소장)
- 22일(월)** 오후 7:30 심진호 교수의 예술기행(12) 영화, 캐딜락 레코드를 통해 본 리듬 앤 블루스(R&B)의 뮤지션들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23일(화) 오후 7:30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_시네페미니즘
강사/주유진(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29일(월) 오후 7:30 노자철학, 이것이다
강사/윤산-김수정(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교

- 양교육원 외래교수)
- 30일(화)** 오후 7:30 중국 소수민족 속의 우리민족
강사/공봉진(국제지역학 박사, 목아연구소 소장)

마다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여행지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고급휴양도시로 알려진 비스바덴(Wiesbaden), 헤센공작이 예술가들을 위해 건립한 문화의 도시 다름슈타트(Darmstadt),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거점으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등 독일의 소도시 여행을 통해 행복한 여행을 꿈꾸어 본다.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 22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제20강 '세상속의 색, 그 색 속의 나_색채심리 1-적, 주황, 황색으로 말하다'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제13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여행, 가을, 행복-찾아가는 시낭송회

일시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통영 유치환문학관, 박경리기념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기타공연장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오후 7:00 사하구평생학습관
입장료 12만원(3개월 수강료) *사하구평생학습관 무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부산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전 MBC PD, 시인, 음악치료사) 클래식음악해설가가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영상감상회. 해외의 최신 클래식음악 연주회 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화질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파가니니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엘가 '첼로협주곡'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등

전시 | Display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전 중간보고서 2018 'Don't Move-변순철'

일 시 9월 8일(토)-11월 21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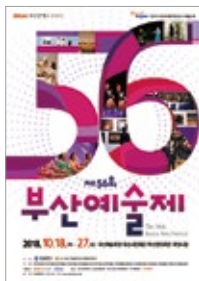


고은사진미술관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40대 사진가들에게 이전의 작업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해온 '중간보고서' 2018년 전시. 인물사진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심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온 작가 변순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사진가인 그의 작품을 통해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되는 20여년간의 그의 사진적 시각을 조망하는 계기를 선사한다.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하는 제56회 부산예술제

일 시 10월 18일(목)-27일(토)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청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종합예술의 대향연 제56회 부산예술제. 부산예술제는 지난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경축하기 위해 시작된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축제, 2009년부터는 부산시의 해외자매(우호)도시와 함께하는 국제교류행사로 발돋움했다. 올해 부산예술제에서는 중국 상하이, 일본 후쿠오카, 대만 가오슝, 몽골 울란바토르 등 부산의 해외자매도시 예술인 50여명이 부산을 방문해 교류무대를 갖는다.

이종기展

일 시 9월 28일(금)-10월 26일(금)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미술대학원으로 방향을 바꾼 작가의 독특한 이력 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화풍으로 유명한 이종기 작품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상들과 화사하고 선명한 색감, 편안하고 유쾌한 감성으로 충전된 그의 작품 속에는 뜬금없이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이나 지상의 풍경 여기저기를 여행하는 심슨가족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색다른 재미를 더해준다.

주요일정

- 개막공연 '2018 가곡과 아리아의 밤' 10월 19일(금)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0월 19일(월)-21일(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제19회 국제건축도시디자인사진전 10월 19일(금)-22일(월)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秀秀한 연극초청전 10월 19일(금) 오후 7:30, 20일(토) 오후 3:00, 6:00, 24일(수)-25일(목)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통음악교류한마당 10월 20일(토) 오후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제19회 실버가요제 10월 21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 10월 23일(화)-27일(토) 부산시청 전시실
- 제5회 지역문학작품교류전 10월 24일(수)-27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부산영화제 10월 27일(토)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무용예술제 '춤, 생명을 빛다' 10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꽃예술전 10월 26일(금)-27일(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세계음다풍속 10월 27일(토)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부산중견작가 초대전

일 시 10월 2일(화)-10월 21일(일) 갤러리을속도
문의 을속도문화회관 220-5822

바다 100층 짜리 집 미디어 특별전 '이와이 도시오의 동화 아쿠아리움'展

일 시 10월 3일(수)-10월 29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이와이 도시오의 그림들을 미디어 작품들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 이와이 도시오의 '바다 100층 짜리 집'을 모티브로 한 첫 복합 미디어 아트 전시로, 바다 속 친구들과 떠나는 모험, 바다 100층짜리 집의 숨겨진 스토리 애니메이션 신작을 선보인다.

전주세계소리축제 2018 무대에 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영국의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스(Songlines)’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음악페스티벌 베스트 25’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018(10월 3일~7일)’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씨가 초청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박성희 씨가 서는 무대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10월 6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그의 장기라 할 수 있는 ‘수궁가’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악장 김경호(적벽가)를 비롯해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 김세미(춘향가), 장문희(심청가), 우리나라 여창 판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꾼 김수연과 그의 제자 강경아(홍보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량을 지닌 명창들의 농익은 전통 판소리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박성희 씨는 전라,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아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소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라도권, 중앙권의 소리꾼과 겨뤄볼 수 있는 무대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산에서 어렵지만 묵묵히 소리꾼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겠다는 각오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생각입니다.”

판소리의 불모지라 여기는 부산에서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희 씨는 소리꾼으로서 발음과 음정이 매우 정확하다는 평가와 함께 객석을 휘어잡는 뛰어난 무대매너로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광주, 남원, 서울, 함안 등 전국에서 많은 국악팬들이 찾고 있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앞두고도 벌써부터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70~80명의 응원단이 전

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1998년 남원춘향제 전국판소리 명창대회에서 부산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일반부 우수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박성희 씨는 지난 2010년에는 제12회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명창 반열에 올랐다.

그동안 김소희 선생을 비롯해 송순섭, 전정민, 안숙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리꾼으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배운 박성희 씨는 지난 1998년 홍보가 완창무대를 시작으로 2001년과 2011년, 그리고 2015년에는 ‘수궁가’ 완창무대를 선보였으며 2008년과 2010년에는 판소리 다섯마당의 하이라이트를 묶어 기획한 ‘눈대목’ 무대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으로 자리매김했다. “수궁가는 무엇보다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다 동물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사와 등장인물들의 속고 속이는 반전의 매력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그동안 3차례 완창무대를 통해 박성희만의 ‘수궁가’를 선보여온 그는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 2018’에서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신문법 교수와 함께 수궁가로 관객과 만난다. 홍보가, 수궁가에 이어 내년에는 ‘심청가’ 완창무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는 앞으로 남은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무대에 이어 부산을 소재로 한 창작판소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올해는 스승인 안숙선 선생이 국립극장에서 매년 마지막 날 여는 ‘국립극장 제야판소리’ 무대를 통해 판소리 ‘심청가’로 국립극장 무대에 선다. 현재 박성희 씨는 대학 졸업과 함께 입단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악전문단체 ‘타로’의 공동 대표로 국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박성희 소리연구소’로 출발, 지난해 사단법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사)박성희소리보전회는 올해 11월 22일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공익기관으로서 공연은 물론 교육, 복지사업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36회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 부산 총회

The 36th FACP Conference in Busan
11월 1일(목)-4일(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산문화회관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연예술관계자를 주축으로 지역 내 상호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 문화예술진흥연맹(Federation for Asian Cultural Promotion/이하 FACP)’의 제36차 연례총회가 (재)부산문화회관의 주최로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문화예술산업의 새로운 지평(A New Horizon for Cultural Industries)’를 주제로 주제강연과 주제토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세션으로 꾸며진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사례 및 전략 등을 심도 깊게 살펴보는 주제 강연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의 총감독을 맡은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과 미국 콜로라도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아스펜음악제·음악학교’의 대표인 앨런 플레처(Alan Fletcher)를 초청,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속 예술과 과학’, ‘아스펜 음악축제의 운영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가야금 앙상블 사계



송승환

앨런 플레처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주제토론은 각 세션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문가 3~4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살펴본다.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는 11월 2일에는 우선 ‘아시아의 숨은 공연장’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몽골, 베트남, 인도의 공연장을 소개한다. 이어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_한중일 문화예술산업의 현황과 과제:하얼빈, 가나자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의 문화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3국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일은 총 3개의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음악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음악축제의 대표 및 예술감독을 초청하여 음악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며, ‘4차 산업:문화산업의 기회, 혹은 위기’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4차 산업시대에 문화예술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마지막 세션 ‘문화예술의 자금조달 및 후원 유치를 위한 노력’에서는 실제 기획자를 초청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후원 유치 방안을 공유한다.

이 외에도 총회 기간동안에는 아시아지역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소개하는 AGA(Asian Gems in the Arts) 쇼케이스, 부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한편, 이번 총회는 FACP 연간 회원을 등록한 문화예술관계자 및 일반인 모두가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10월 28일(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The 36th FACP Conference in Busan



November 1st, Thursday

- 15:00 참가등록
18:00~20:00 환영만찬

November 2nd, Friday

- 10:00~10:30 개막식
10:30~11:20 주제강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속 예술과 과학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11:30~12:20 주제강연
아스펜 음악 축제(ASPEN Music Festival)의 운영 전략
(Alan Fletcher, 아스펜 음악제-음악학교 대표)
12:00~13:10 점심
13:10~13:30 AGA 공연 - 몽골 오페라단(몽골)
13:30~14:50 주제토론
아시아의 숨은 공연장 : 몽골, 베트남, 인도
(Mr. Tran Vuong Trach, Ms. Brinda Chudasama
Miller, Ms. Chuluunbat Munkhzul)
15:10~16:30 주제토론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한중일 문화예술산업의 현황과 과제 :
가나자와, 하얼빈, 부산 (김원명 교수)
18:00~19:00 저녁
19:30~22:00 공연관람
<조재혁&이은결의 IMAGES>

November 3rd, Saturday

- 10:00~11:40 주제토론
음악 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Mr. Florian Riem, Mr. Alan Fletcher,
Mr. Walter Reicher, Mr. Song Tu)
11:40~12:00 AGA 공연 - 가야금 앙상블 사계(한국)
12:00~13:20 점심
13:20~13:40 AGA 공연 - 트럼본 듀오(일본)
13:40~15:00 주제토론
4차 산업 : 문화산업의 기회, 혹은 위기
(Dr. Woonseung Yeo, Mr. Maurice Lai, Mr. Li Hui)
15:10~16:30 주제토론
문화예술의 자금조달 및 후원유치를 위한 노력
(여운승 교수, Mr. Nick Jaffer, Ms. Fan Man-Nong)
16:30~16:50 AGA 공연 - La Salle Dance Company (필리핀)
18:30~22:00 환송만찬

November 4th, Sunday

- 10:30~11:3 폐회식/연차총회
12:00~ 시티투어(선택)

* 본 프로그램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산시민회관

시인 동길산

뭐랄까, 느낌이 좋다. 생기 같은 게 느껴진다. 사람 사는 느낌이랄 수도 있겠다. 공연이 없는 평일인데도 낮은 낮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사람 온기가 감돈다. 빛으로 치면 은은하달까 요란스럽지 않으면서 시선을 붙잡는 게 소박하면서 정감이 넘친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초등학생 넷이 대리석 계단을 밟고 서서 논다. 하나는 고학년이고 나머진 저학년이다. 고학년 여자아이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손을 내민다. 이긴 아이는 일고여덟 되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간다. 연신 지기만 하는 남자아이는 “난 안 할래!” 투정 부리며 씩씩거린다.

아이들이 밟고 선 계단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야외계단. 나에겐 추억의 계단이다. 중학생일 때 처음 밟았으니 햇수론 사십 년 저쪽의 계단이다. 여기 앉아서 사람을 마냥 기다리던 대학생 시절도 기억난다. 기다리던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고 차갑고 딱딱한 계단의 느낌은 오

래오래 남았다. 계단이 주는 느낌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 대신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을 준다. 낮에는 아이들이 찾고 저녁에는 젊은 사람이 찾아 계단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꽃다운 남녀가 계단에 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곱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저들에게도 계단은 따뜻하고 보드랍게 느껴지리라.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은 계단 아래서도 느껴진다. 분수대며 파라솔 벤치며 등나무 벤치, 그리고 명시가 새겨진 돌의자 등등은 보기만 해도 푸근하다. 점심 먹은 후 들르고 싶은 곳이고 저녁 먹은 후 들르고 싶은 곳이다.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하면서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를 슬로건으로 내건 부산시민회관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회관, 시민이 다가가는 시민회관이라면 응당 이래야 한다.

내가 자청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에게 예전의 부산시민회관은 스쳐 지나던 곳이었다.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사회에 나와서도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대연동에 부산문화회관이 들어서면서 시민회관으로 가는 일조차 드물어졌다. 시민회관은 내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졌다. 그런데 몇 달 전 한여름이었다. 저녁 무렵 여

를 지나다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참 따뜻하고 참 보드라운 느낌이었다. 야외마당을 밝히는 은은한 빛이며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는 정경에 내 시선을 멈추었고 내 마음을 멈추었다. 나도 저기 스며들고 싶었고 저기 스며들어 나도 은은해지고 싶었다.

약간의 반성 같은 것도 있었다. 학교 다닐 무렵 부산시민회관은 부산에서 유일한 공공문화회관이었다. 여기서 미술전시회를 했고 공연을 했으며 영화를 했다. 미전을 보려고 중학생일 때 처음 여기를 찾았고 클래식에 빠져서, 시내 극장보다 싸서 여기를 찾곤 했다.

그런 곳을 너무 오래 외면했다. 너무 오래 찾지 않았다. 내 젊은 날 추억이 스민 곳인데 찾지도 않고 어쩌다 근처에 와서 그냥 지나기만 한 내 무심을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 이제라도 저기 은은하게 스며드리라,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던 계단에 무심코 앉았다가 괜스레 쩡해진 마음이 이 글을 쓰게 했다.

계단 아래 분수대는 미적이다. 분수대 자체도 미적이고 분수대에 세운 조형물도 미적이다. 소녀랄지 여인이 첼로를 든 조형물에선 가만 귀 기울이면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오지 싶다. 다정다감한 느낌은 부산시민회관 곳곳에서 받는다. 허리 뻗뻗하게 세워서 위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정감이





시민회관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찾게 하는 게 시민회관의 요즘 모습이다. 대극장과 맞붙은 소극장 앞의 야외무대며 휴게시설은 아이와 엄마 차지가 된 지 오래. 온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아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에게 이만한 공간이 또 있을까 싶다.

소극장 로비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아트숍은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다. 뽕뽕한 에어컨에 미안해서라도 상품 하나쯤 사게 된다.

부산시민회관은 지난해 통합하면서 관장 직제가 본부장 직제로 바뀌었고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직을 공개 채용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부산시향과 함께한 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시민뜨락축제’, 일본 어쿠스틱 카페의 ‘별을 산 날’,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나는 덕후다전’에서부터 하반기 ‘퀸틴 블레이크전’, 젊은 작가들을 위한 ‘화이트테이블의 아트 페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산 문화’가 주 컨셉이라고 한다. 부산시민회관 측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에 불과하지만 스물 가까운 기획을 펼쳤거나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 펼쳐질 공익적인 기획들에 대한 기대 역시 자못 크다. 이들 기획도 모두 무료이거나 입장료 1천원이다. 가수 노사연과 이무송 공연, 조선왕 맥베스, 인기 가수 정동하 출연의 송년음악회, 시민뜨락축제, 대규모 아트 페어 등이 그것이다.

공익적인 기획에 치중할 수 있었던 것은 상반

기에 목표 수익을 이미 넘어서 덕분이다. 그만큼 부산시민회관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기획력에 시민의 공감과 호응이 높았다는 방증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다. 부산시민회관의 시설 연령은 45세. 사람으로 치면 여기저기 탈이 날 나이이다. 나이드는 시설이며 장비를 교체하는 일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시설 현대화를 꾀하는 김에 무대 전환장치를 기존의 수동식에서 자동화하겠다는 복안도 절묘하다. 수동식이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 문예회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시민회관’ 시민회관 야외마당 대형 홍보판 문구다. 부산시민회관이 들어선 때는 1973년. 그때만 해도 부산문화 하면 시민회관이었고 시민회관 하면 부산문화였다. 중장년 부산 사람에게 부산시민회관은 공간이면서 추억이다. 추억이 스며든 공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난 안 할래!” 투정 부리던 아이는 그새 마음을 돌렸는지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구령에 맞춰 연신 손을 내민다.



부산문화회관 소식

◇ (재)부산문화회관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9월 17일부터 수강생 모집, 10월 2일 개강

실기강좌에서부터 인문학, 교양강좌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수준높은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18년도 4분기 강좌가 10월 2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특히 매 분기마다 참신한 주제의 신규강좌를 개설해온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이번 4분기 강좌에서 무대에 오르는 배우로, 때로는 무대 뒤의 기획자로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시선을 가진 장진규 드림문화오페라단 단장과 함께하는 ‘오페라 속 사람 사는 이야기’를 새롭게 신설, 오페라를 더욱 깊이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올해 푸치니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를 대표하는 3대 오페라인 ‘토스카’, ‘나비부인’, ‘라보엠’의 대본 분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 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단기 음악강좌로 특히 직장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있는 ‘세계의 뮤지컬’은 ‘영국편’, ‘프랑스편’에 이어 미국과 제3세계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만난다. 공연칼럼니스트 이상훈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뉴욕 브로드웨이를 열광케한 디즈니 뮤지컬과 21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뮤지컬 열풍을 소개하는 ‘미국편’에 이어 ‘태양의 서커스’부터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제작된 색다른 뮤지컬을 소개하는 ‘제3세계편’ 등 두차례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매 분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존 인문학 강좌 역시 수강 열기가 뜨겁다. 2018년 총 4분기에 걸쳐 미술사의 모든 계보를 살펴보는 장원 교수의 전통미술사 수업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현대작가론’을 주제로 국내외 현대작가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집중조명하며 지난 1년간 살펴 온 시대별 미술사 계보의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또, 장원 교수가 올해 2

분기 강좌부터 진행해온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는 이번 4분기에서는 ‘미술과 음악’을 주제로, 피아노 듀오의 라이브 연주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미술이론 수업으로 수강생들을 만난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김은주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부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찾아 답사와 미학이론을 겸비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사진작가 뿌리야 김과 함께하는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명강의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는 이번 강좌에서도 계속된다. 이밖에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입문과정인 ‘한국무용 기초’ 외에도 중급이상의 작품반인 ‘부채춤’, ‘살풀이-이매방류’가 새롭게 개설되어 있으며, 바이올린, 가야금, 사물놀이, 클라리넷, 해금, 클래식 기타 등 다양한 악기의 실기 강좌 역시 요일별, 시간대별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발레의 기본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를 교정하고 몸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슬림 업 발레스트레칭’, 미국에서 국민생활건강 댄스로 열풍을 일으킨 라인댄스는 이번 강좌에서도 많은 수강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10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생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 607-6061~4,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10월 11일(목)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 로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10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 로비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지휘자 전진이 이끄는 부산시립합창단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며, 로비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후원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리셉션이 펼쳐진다.



2018년도 4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 9.17(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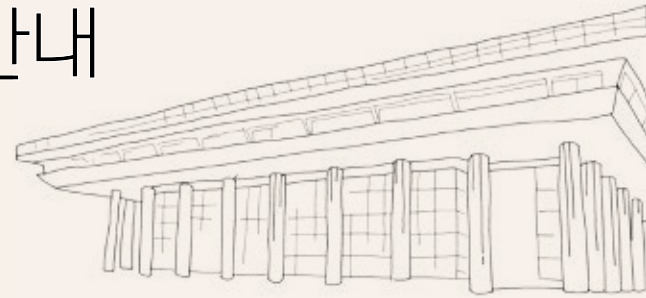
특 강 **오페라 라보엠** 10.17 (수) 14:00-16:00 컨퍼런스홀 (수강료 : 20,000원) - 푸치니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

인문학 · 교양						
강좌명	기간	요일 (횟수)	시간	장소	정원	수강료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초급)	10.8 - 12.10	매주 월 (10회)	10:30-12:30	강의실	15	15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응용)	10.8 - 12.10	매주 월 (10회)	14:00-16:00	강의실	15	15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10.16 - 12.18	매주 화 (10회)	14:30-16:30	컨퍼런스홀	30	18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 미술과 음악	10.11 - 12.13	매주 목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5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현대작가론	10.13 - 12.15	매주 토 (10회)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포트폴리오)	10.6 - 12.8	매주 토 (10회)	10:00-12:00	강의실	20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초급)	10.6 - 12.8	매주 토 (10회)	15:00-17:00	강의실	20	120,000
★ 세계의 뮤지컬 (미국편)	9.29 / 10.6	매주 토 (2회)	11:00-13:00	컨퍼런스홀	50	40,000
★ 세계의 뮤지컬 (제3세계)	12.15 / 12.22	매주 토 (2회)	11:00-13:00	컨퍼런스홀	50	40,000
★ 오페라 속 사람 사는 이야기	10.24 - 11.28	매주 수 (6회)	14:00-16:00	컨퍼런스홀	50	100,000
실기 (음악 · 무용)						
바이올린 A	10.8 - 12.10	매주 월 (10회)	17:30-19:00	강의실	12	120,000
바이올린 B	10.8 - 12.10	매주 월 (10회)	19:30-21:00	강의실	12	120,000
가야금 (중급)	10.2 - 12.11	매주 화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40,000
가야금 (초급)	10.2 - 12.11	매주 화 (10회)	19:30-21:00	레슨실	12	140,000
사물놀이	10.2 - 12.11	매주 화 (10회)	17:30-19:00	연습실	12	120,000
★ 한국무용 (부채춤)	10.2 - 12.11	매주 화 (10회)	15:00-16:20	연습실	20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10.10 - 12.12	매주 수 (10회)	10:30-11:30	연습실	20	100,000
클라리넷 A	10.10 - 12.12	매주 수 (10회)	17:30-19:00	강의실	8	120,000
클라리넷 B	10.10 - 12.12	매주 수 (10회)	19:30-21:00	강의실	8	120,000
한국무용 (기초)	10.10 - 12.12	매주 수 (10회)	15:00-16:10	연습실	20	100,000
★ 한국무용 (살풀이_이매방류)	10.11 - 12.13	매주 목 (10회)	15:00-16:20	연습실	20	100,000
라인댄스	10.4 - 12.6	매주 목 (10회)	13:00-14:00	연습실	20	100,000
해금 (초급)	10.11 - 12.13	매주 목 (10회)	17:30-19:00	레슨실	12	120,000
해금 (중급)	10.11 - 12.13	매주 목 (10회)	17:30-19:00	강의실	12	120,000
해금 (고급)	10.11 - 12.13	매주 목 (10회)	19:30-21:00	강의실	12	120,000
클래식 기타 (중급)	10.12 - 12.14	매주 금 (10회)	14:00-15:30	강의실	15	120,000
클래식 기타 (초급)	10.12 - 12.14	매주 금 (10회)	16:00-17:30	강의실	15	120,000
프리미엄 발레	10.12 - 12.14	매주 금 (10회)	14:00-15:00	연습실	20	100,000

★ 신규강좌 ※ 강좌 신청은 내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마감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초청,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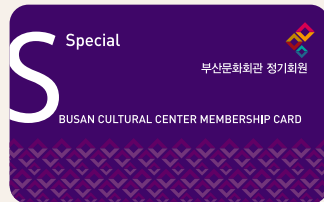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MEMBER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종료]

8월 2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공연.
• 지휘 : 정지용 • 협연/피아니스트 : 손민수

오늘같은 밤 콘서트 [종료]

9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와 바다새가 함께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무대.

국립무용단 '묵향' [종료]

10월 6일(토) 오후 3: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회당 선착순 30매)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묵향' 부산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종료]

10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예약중]

10월 31일(수), 11월 28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4.
• 지휘 : 김봉미 • 해설 : 조윤범

조재혁 x 이은결 IMAGES [종료]

11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1인 2매, R석 선착순 60매)

'대한민국의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특별한 만남.'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4, 태(態) [예약중]
12월 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마지막 무대.

2018 제야음악회

12월 31일(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9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8년 제야음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이정일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종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륜사무소 담현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 2018년 9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작은 실천이 이끄는
부산문화발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임성국 이사



하이원해운항공(주) 대표이사로 있는 임성국 이사는 평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에 가입했다. 서로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후원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 부산문화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그는 후원회원이 되고서부터 부산과 부산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각을 다루는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성격이 많이 급해졌다는 그는 평소 클래식 음악이 주는 여유로움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 후원회원이 되기 전에도 자주 공연장을 찾기는 했으나 후원회원이 되고서부터는 더욱 발걸음이 잦아졌다는 임성국 이사. 최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던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부산공연과 열정적인 무대가 돋보

였던 쿠바 재즈의 디바 ‘다이메 아로세나’ 내한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10월에도 후원회 로비음악회를 비롯한 공연장 나들이 일정으로 스케줄이 빼곡하다. 그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은 주변인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직원들과의 회식을 공연장에서 가져오고 있는 임성국 이사는 그가 기수회장으로 있던 고등학교의 총동문회 행사를 공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기획해 동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또, 그가 활동하고 있는 새서면 로터리 클럽이 한국무용 전공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임성국 이사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내년부터는 장학제도를 점차 키워간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임성국 이사는 앞으로 시민 한명 한명이 후원회원이라는 생각으로 후원회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임정덕 이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임정덕 이사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을 지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메세나 단체인 ‘예술과 부산’을 운영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문화계 인사로 유명하다. 그가 2005년 발족한 ‘예술과 부산’은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 한아름, 김재원, 플루티스트 강미경, 오보이스트 김미영 등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며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온 지역의 대표적인 메세나 단체이다. 또, 그보다 앞서 임정덕 이사는 지난 1990년대 부산 최초의 후원회라 할 수 있는, 대동병원 박성환 원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후원회원으로도 활동하며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왔다. 그런 그에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

회 활동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임정덕 이사는 어려서부터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입시공부로 바쁜 와중에서도 합창단을 조직, 지휘자로 활동하며 새벽마다 피아노가 있는 학교 음악실을 찾아 독학으로 작곡공부에 매달릴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던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서는 서울상대 합창단, 졸업 후 잠시 몸담았던 한국은행에서는 한은 혼성합창단, 그리고 미국 유학시절에는 한인교회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할 정도로 그의 치열했던 삶에 있어 음악은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가진 힘이 크다’는 임정덕 이사. 그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신인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유지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이 공존하는 터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민화

강우방 지음 / 다빈치
536p / 4만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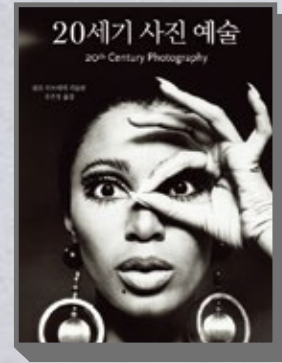
우리 민족사에서 민화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무명 화가가 '정통' 또는 '전통' 회화를 모방해 실용을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여겨져 왔다. 민화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그림은 모두 민화로 뭉뚱그려져 전해져왔다. 미술사학자 강우방은 이 책을 통해 민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등을 지내며 한국 미술 연구에 힘써왔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불쑥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라 여겨지던 민화에 고대 고구려의 조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민화를 비롯해 고구려 무덤 벽화, 백제와 신라의 유물, 고려 불화, 조선의 의궤, 고대 인도와 중국의 조각까지 수많은 작품을 하나하나 해부하듯 들여다보며 민화의 연원을 찾았다. 저자는 민화에서 고대의 조형 예술과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과 양식을 발견했다. 민화에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쳐 전해 내려온 조형과 상징이 온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민화는 과거의 전통을 익힌 훈련된 화가가 아니면 그려낼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 세계임을 알 수 있는 책이다.



베토벤 아홉 개의 교향곡

나성인 지음 / 한길사
416p / 1만 5천 5백원

인류사에서 베토벤만큼 유명한 음악가가 또 있을까. 교향곡 제5번 '운명'의 첫 소절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 인문학과 클래식 음악을 결합시켜온 저자가 베토벤의 수많은 작품 중 아홉 개의 교향곡에 대해 다룬 책을 냈다. 다양한 문학작품과 회화, 신화 등을 이용한 깊이 있는 음악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책은 베토벤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준다. 저자는 "베토벤의 교향곡은 개인과 사회, 예술과 현실 양면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한다. 당시 계몽사상은 연주회장을 벗어나 자기 집에서 음악을 즐기려는 음악 대중을 형성시켰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교향곡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다. 그동안 종교적 요구나 귀족의 여흥에 복속됐던 음악가들은 절대음악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 절대음악은 계몽의 산물이었고 교향곡은 대표 장르였다. 음악가들은 독립성과 예술적 자유를 쟁취해갔다. 이 책은 그러한 사회적 변혁과 맞물려 확산된 교향곡의 최고봉인 베토벤의 숨은 면모를 추적해 흥미롭다. 베토벤 교향곡의 탄생은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 아홉 개의 교향곡에는 자유와 승리, 축제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20세기 사진 예술

윌른 루트비히 미술관 / 마로니에북스
760p / 2만 8천원

독일 윌른에 자리한 루트비히 미술관은 독일 현대미술관 중 최초로 사진 컬렉션을 갖춘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이 소장한 9,300여 점의 사진 중에서 엄선한 860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이 미술관은 뛰어난 사진 컬렉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러 수집가들의 기증과 꾸준한 작품 구입으로 세계적인 사진 작품을 보관 및 전시하고 있다. 독일 사진가 앨프리드 아이젠스타트가 찍은 'V-데이(전승 기념일)'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수병과 간호사가 열정적인 입맞춤을 나누는 흑백 사진이다. 이 사진을 비롯해 '순간'의 포착으로 이름난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종군사진가로 버트 카파 등 20세기의 사진 거장 300명의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작가의 사진 입문과 초기 작업, 작가가 사진계에 미친 영향과 예술관도 담아냈다. 거장의 작품뿐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 사진도 볼 수 있다.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한다. 작가명 알파벳 순으로 수록돼 있어 작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풍부한 사진을 보는 재미와 감동이 크다.

제 31 회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the 31st
BUSAN
CHORAL
FESTIVAL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2018. 10.22(월) ▶ 24(수)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10.22 (월)	경현 Happy Choir	해운대 노노 실버합창단	솔내음하모니 합창단	예그리나 합창단	뫼다 보이스 콰이어	모래톱마을 합창단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명호 여성합창단	예체르 합창단	금성 하모니	부산 브라보 아버지합창단	동의대학교 교수합창단	부경 한소리 합창단	글로리 콰이어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10.23 (화)	신라 시니어스 콰이어	남구 시니어 합창단	금빛 어머니 합창단	부산 은파 합창단	한국건강대학교 온 합창단	무지개 합창단	미루섬 합창단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	부산 여성합창단	예그린 합창단	민들레 합창단	Bella voce 합창단	더울림 콰이어	마린 뮤즈 콰이어	클라쎄 콰이어
10.24 (수)	부산 중구 시니어 코러스	우담바라 합창단	부산진시장 여성합창단	강서 여성합창단	BTN 불교TV 합창단	해운대NH 여성합창단	정관 여성 햇빛 합창단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 합창단	부산 로즈 콰이어	현대 나르시어 합창단	에버그린 코러스	센텀 합창단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
The Richard Strauss Cycle VII - Complete Tone Poe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황제 vs 영웅

2018. 10. 19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김선욱

Program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Op.73
-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R.Strauss | Tone Poem "Ein Heldenleben", Op.40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서툼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천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운행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제3회 미 아리랑 페스티벌 樂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원향춤존회, 부산예술단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 박성희(노래), 손지현(사회)



총감독 이영애



제작총괄/지휘 이정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연출 이범권



안무 김용철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2018. 10. 18(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공동제작 |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

| 후원 | BNK저축은행 FOOD&루트연

| 입장료 | A석-10,000원, B석-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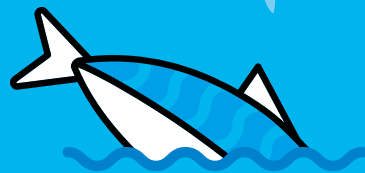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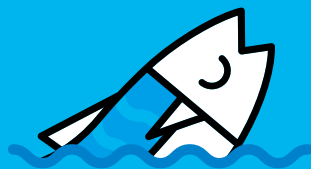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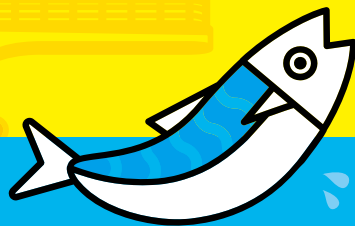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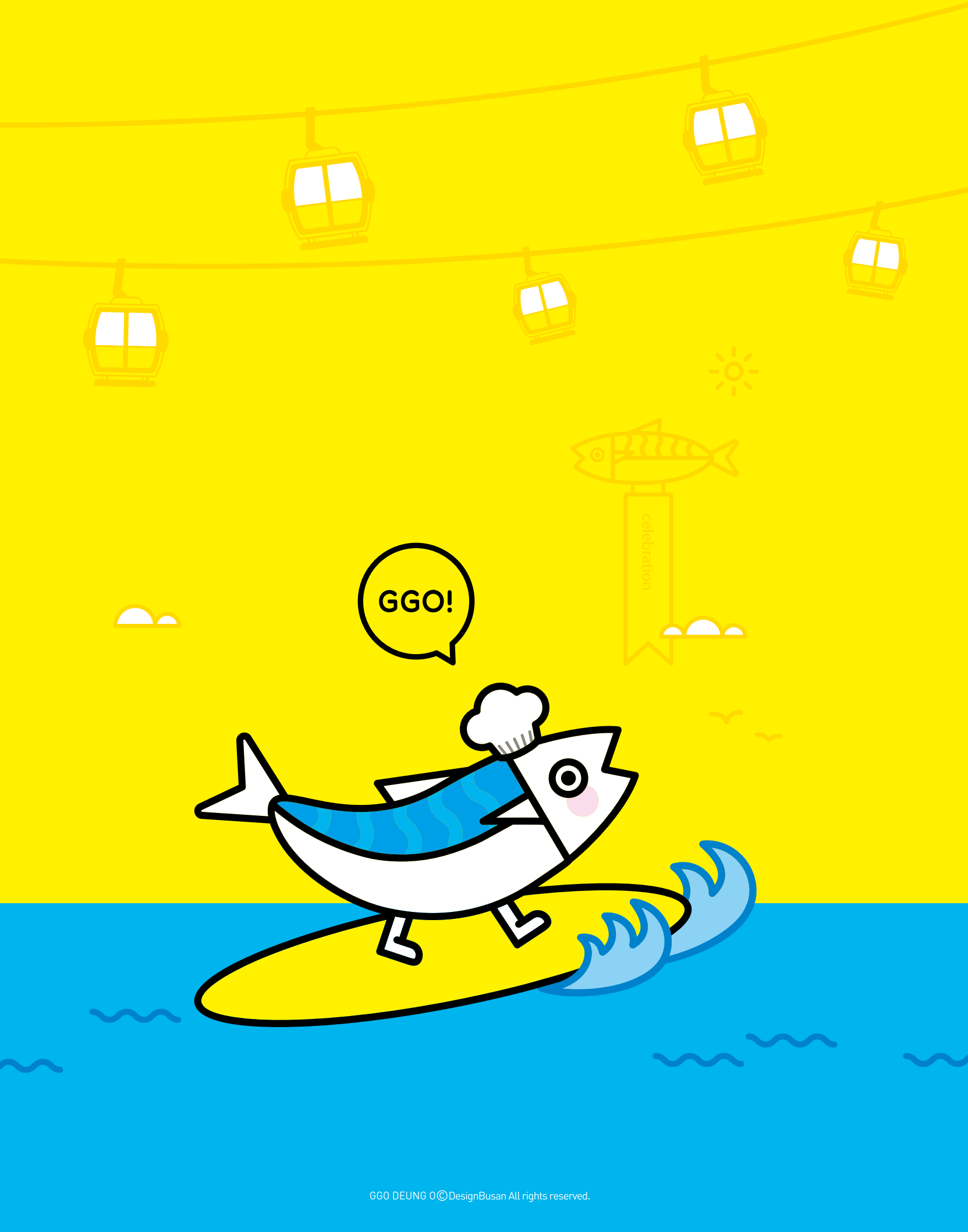


제 11회 부산고등어축제

고등어 부스에서 만나요!

2018. 10. 19 (금) - 10. 21 (일)
부산송도해수욕장, 부산공동어시장 일원





GGO!

celebration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2018.11.10(토)~11(일) 3시, 6시

티켓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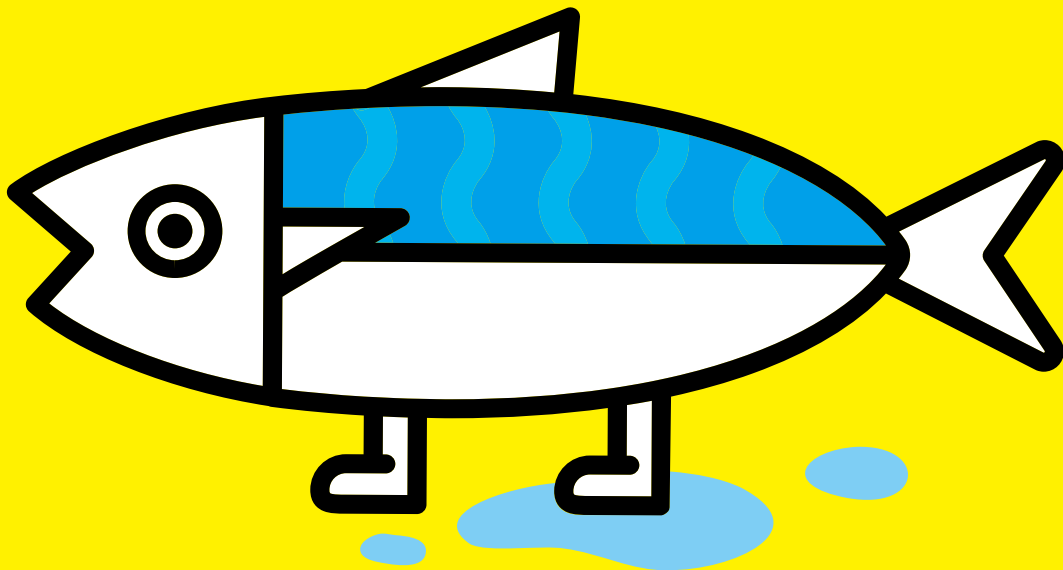
문의 및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인터파크 www.ticketpark.co.kr 1544-1555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조재혁 x 이은결

IMAGES

피아니스트와 일루셔니스트의 만남



2018.11.2 (금)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